

최석환

— Portfolio

2013 — 2019

최석환 — Curriculum Vitae

b. 1990

e stevehwanchoi@gmail.com

t 010.9543.9918

학력

School of Visual Arts NY

시각디자인과 졸업

2009.09 — 2013.05

경력

Freelance Designer

2018.08 — Present

주한프랑스문화원 주최 X to Z: Generations in Dialogue 심포지엄 그래픽 디자인,
2019.04 — 2019.05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하자센터
2018 연차보고서 디자인,
2019.02 — 2019.03

작은것이 아름답다 단행본 녹색상담소 디자인,
2019.01 — 2019.02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웹사이트 디자인,
2018.09 — 12

S/O Project

그래픽 디자이너

2016.09 — 2018.07

2018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 바래
BARE의 Dream Cells 파빌리온 그래픽 디자인
및 포스터 디자인, 2018.01 — 05

영국대사관 주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전시
아이덴티티 및 그래픽 디자인 참여,
2018.02 — 03

한국 첫 애플스토어 런칭 아이덴티티 및 관련
홍보물 디자인 참여, 2017.07 — 2018.01

계원예술대학교 주최 예술박람회 99%디자인
엑스포 아이덴티티 및 홍보물 디자인, 2017.12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서 선보인
바래 BARE의 Looping City 프로젝트
그래픽디자인, 2017.11

2017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기획전
The Other Room 전시 그래픽디자인 및
포스터 디자인, 2017.12

계원예술대학교 Play 프로모션 아이덴티티 및
홍보물 디자인, 2017.07

서울시청소년국악단 국악콘서트 꿈꾸는 세종
포스터 및 홍보물 디자인, 2017.04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가상 박물관
프로젝트 Inter-Asia-Verso 도록 디자인,
2016.12

Math Practice

디자인 인턴 / 그래픽 디자이너

2013.05 — 2014.05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
브랜딩 및 인쇄물 디자인 참여,
2013.09 — 2014.05

MIT Senseable City Lab 전기 자전거
프로젝트 Copenhagen Wheel 브랜딩
프로젝트 참여, 2013.07

2013 TED Fellows Retreat 컨퍼런스
아이덴티티 브랜딩 참여, 2013.05

Why Not Smile

디자인 인턴 / 그래픽 디자이너

2012.05 — 2014.04

하버드 건축대학 Exuma 프로젝트 두번째
연간 리포트 디자인 및 홍보물 디자인,
2013.06 — 2014.01

대교 Eye Level 브랜딩 프로젝트 참여,
2012.05 — 2013.05

Crystal Wine Group 브랜딩 프로젝트 및
홍보물 디자인 참여, 2013.09

교육 컨설팅 회사 INmaginative 브랜딩
프로젝트 참여, 2013.06

전시참여

19회 전주국제영화제 100 Films,
100 Posters 전시 참여 with 김깊은,
2018.05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tE13: 사진과
타이포그래피 전시 참여, 2018.05

18회 전주국제영화제 100 Films,
100 Posters 전시 참여, 2018.04

2017 Munich Creative Business Week
포스터 전시 참여, 2017.02

수상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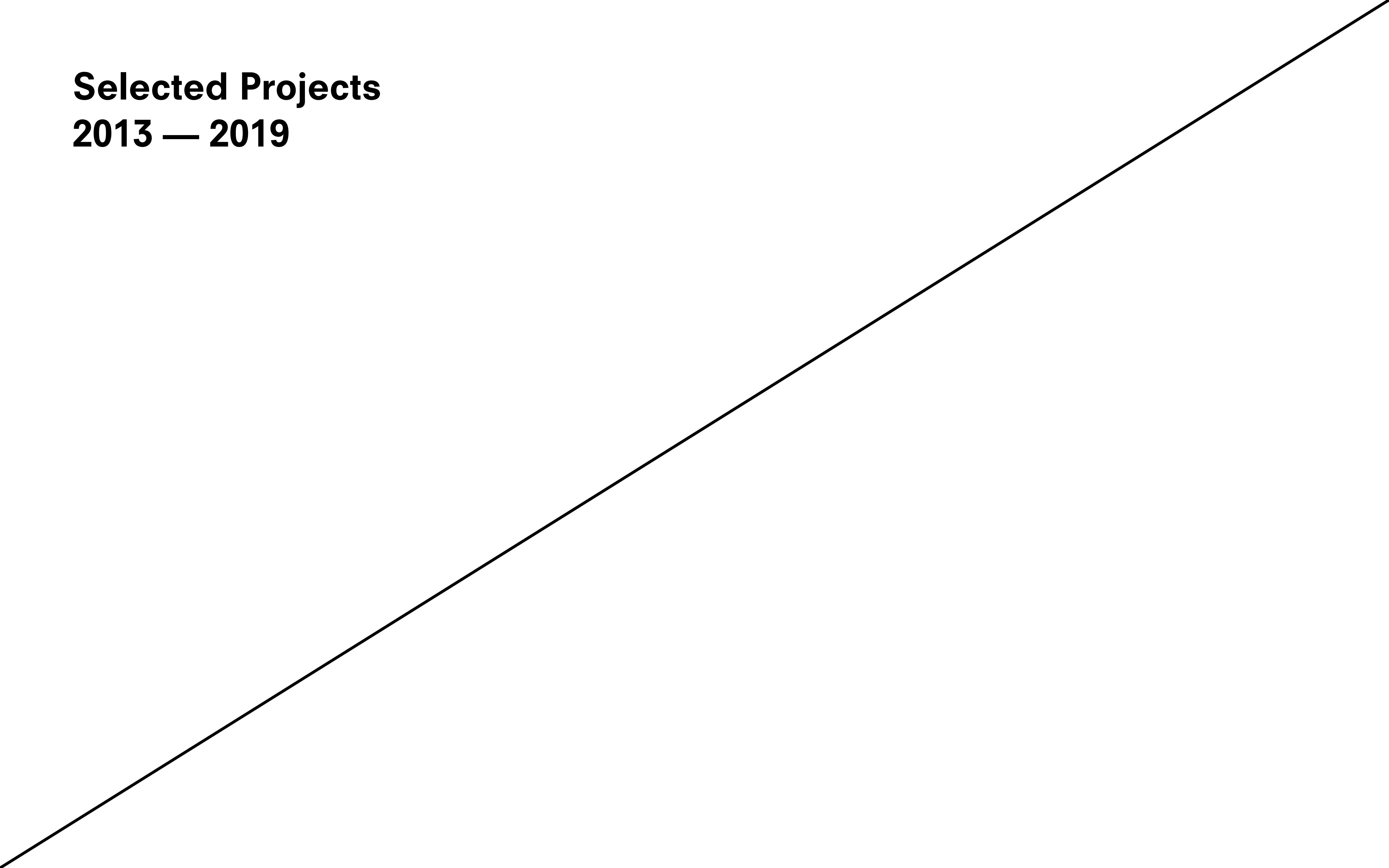
Graphis New Talent Annual,
Merit Awards, 2014.04

First Year ACG Award,
School of Visual Arts, 2010

SVA Grant, School of Visual Arts,
2009 — 2011

Selected Projects

2013 — 2019



Dream Cell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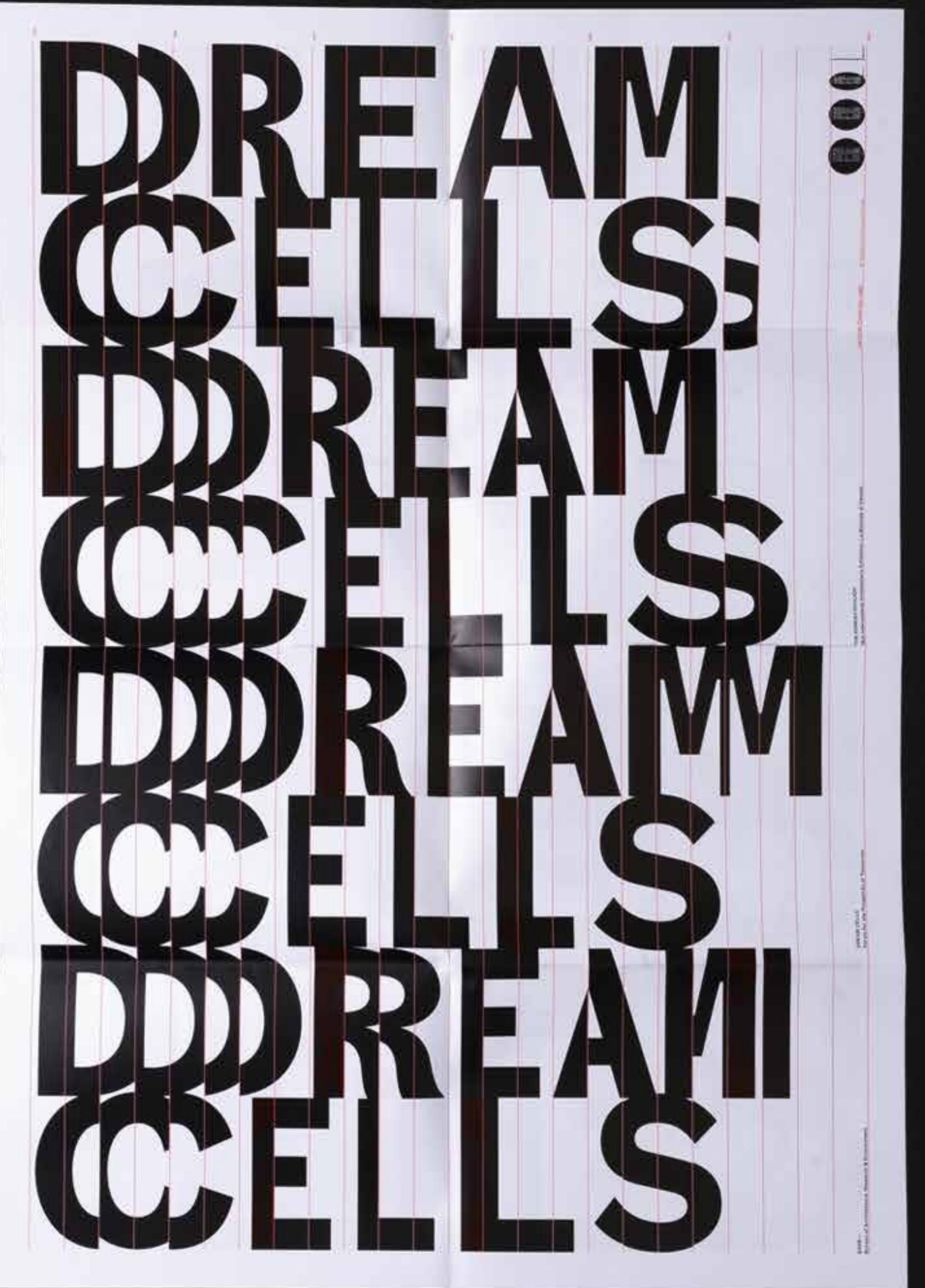
2018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인
건축 스튜디오 바래 BARE의 Dream Cells
파빌리온 그래픽 디자인 및 포스터 디자인













Dream Cells

2018

Dream Cells 파빌리온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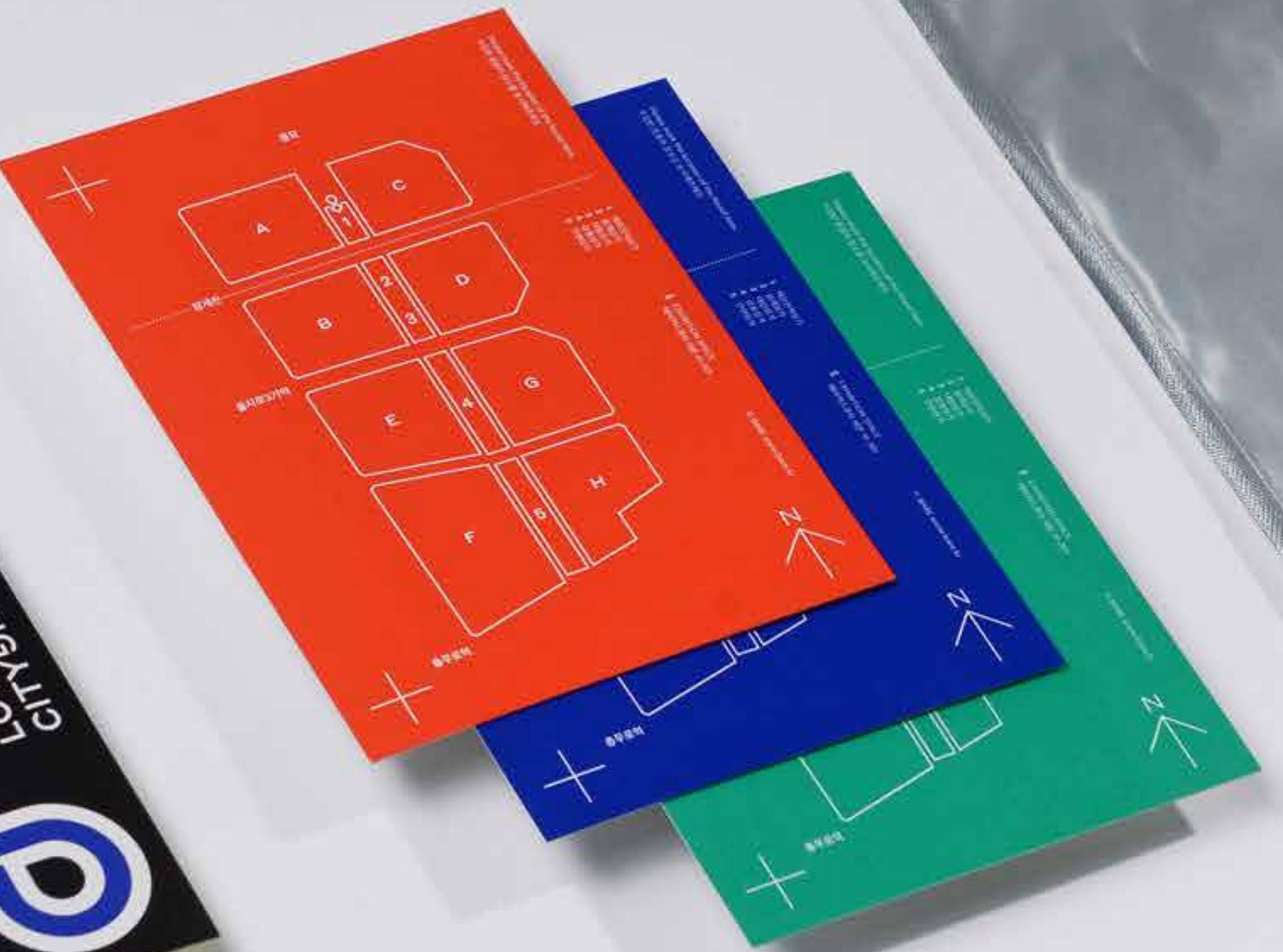
1962



Looping City

2017

세운상가에서 열린 2017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 생산도시 전시에 선보인 건축
스튜디오 바래 BARE의 Looping City
프로젝트 그래픽 디자인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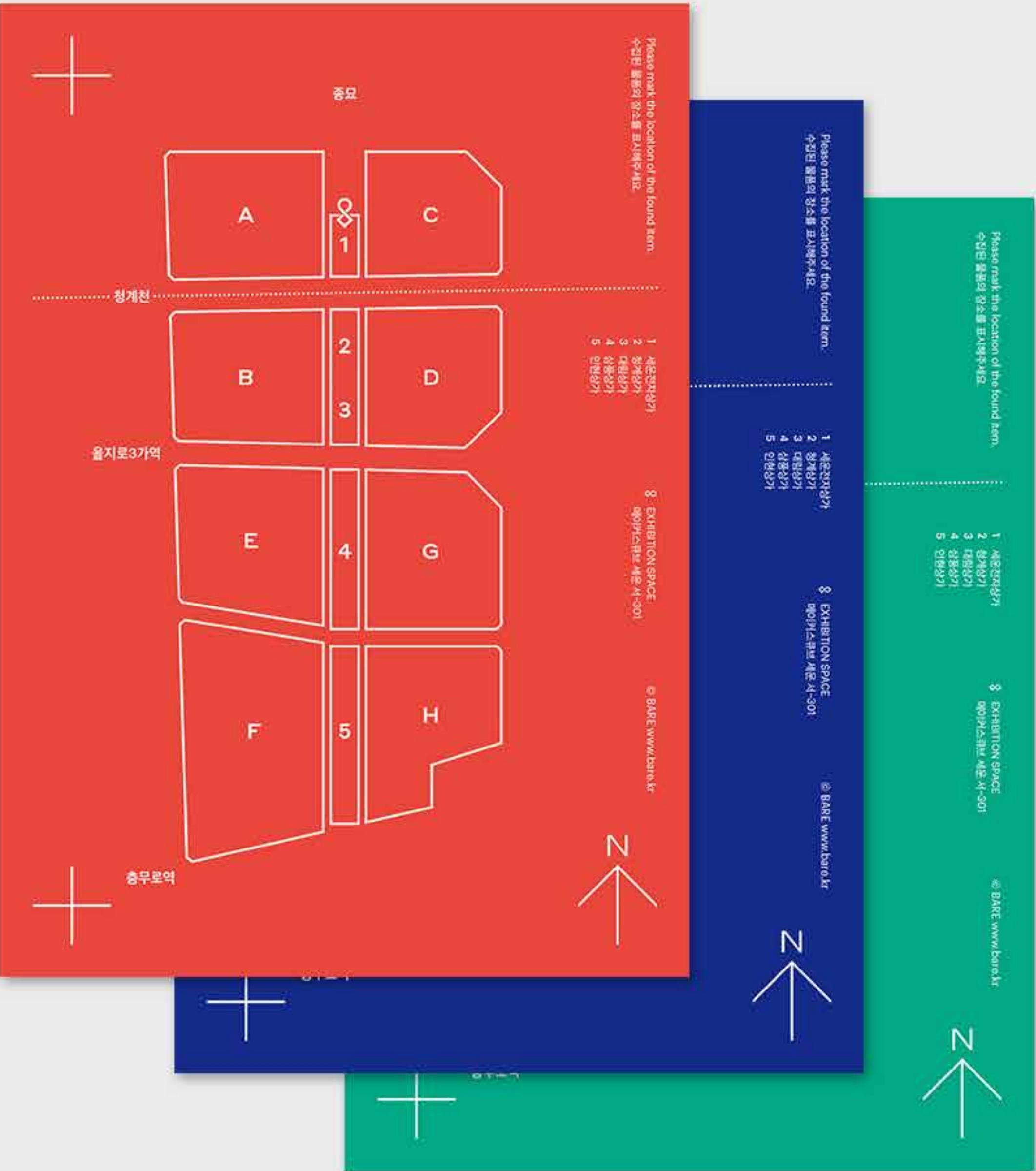


| NO. | Date & Time 날짜와 시간 |
|--|---|
| Items 물품 | Materials 재료 |
| Location / Specific spots where you found it 장소 / 상가, 거리 이름 | |
| PLEASE MARK ON THE MAP OVERLEAF. 및 장 치도에 표시해주세요. | |
| Please tell us why you think this has a value. 수집된 물품에 담긴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 |
| Collector's Name 수집가 이름 | Collector's E-mail or Phone No. 수집가 연락처 / 이메일 또는 핸드폰 |

LOOPING CITY

Please collect items/stories that you think are **VALUABLE** and return them to Exhibition Space with this postcard. Selected participants' items/stories will be exhibited in one of the LOBES and will receive a copy of the [Production City] Publication.

세운강가위대를 돌아다니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물이나 이야기를 수집하고 전시회전 입사와 함께 이를 전시장으로 다시 들려주세요. 선정된 분의 사물이나기는 뮤트에 전시되며, 우후(생산도시)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From X to Z: Generations in Dialogue 2019

주한독일문화원, 코리아 엑스포제,
주한프랑스문화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X부터 Z까지, 세대 간 대화] 심포지엄
그래픽 아이덴티티 및 포스터 디자인

From X to Z: Generations in Dialogue

X부터 Z까지: 세대 간 대화

5.7–10,
2019

Panel Discussions
패널 토론
English/Korean wit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영어/한국어 동시통역

Dinner Conversation
디너 테이블토크
English/Korean/German/French
영어/한국어/독일어/프랑스어

Online registration required
온라인 참가신청 필수

Institut Français de Corée du sud
주한프랑스문화원
02.317.8564
livredeb@institutfrancais-seoul.com
www.institutfrancais-seoul.com

Goethe-Institut Korea
주한독일문화원
02.2021.2821
pro@seoul.goethe.org
www.goethe.de/korea

5.7
Digital
Natives
vs. Digital
Immigrants
디지털 네이티브
vs. 디지털 이주민

5.8
The Value of
Happiness
행복의 가치

Korea Exposé, B1
코리아 엑스포제, B1
19:30

Art Sonje Center, B1 Art Hall
아트선재센터, B1 아트홀
19:30

5.9
Us in the
World
세계 속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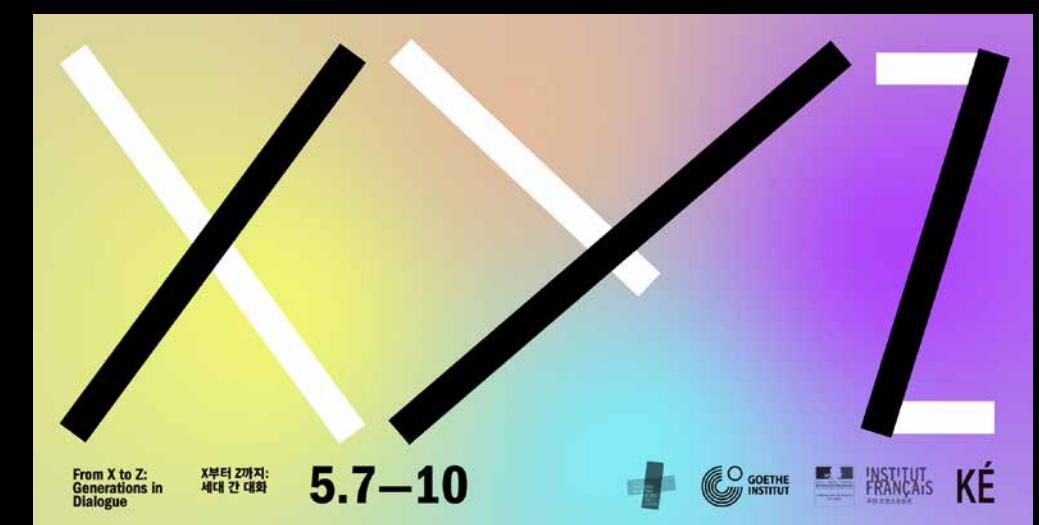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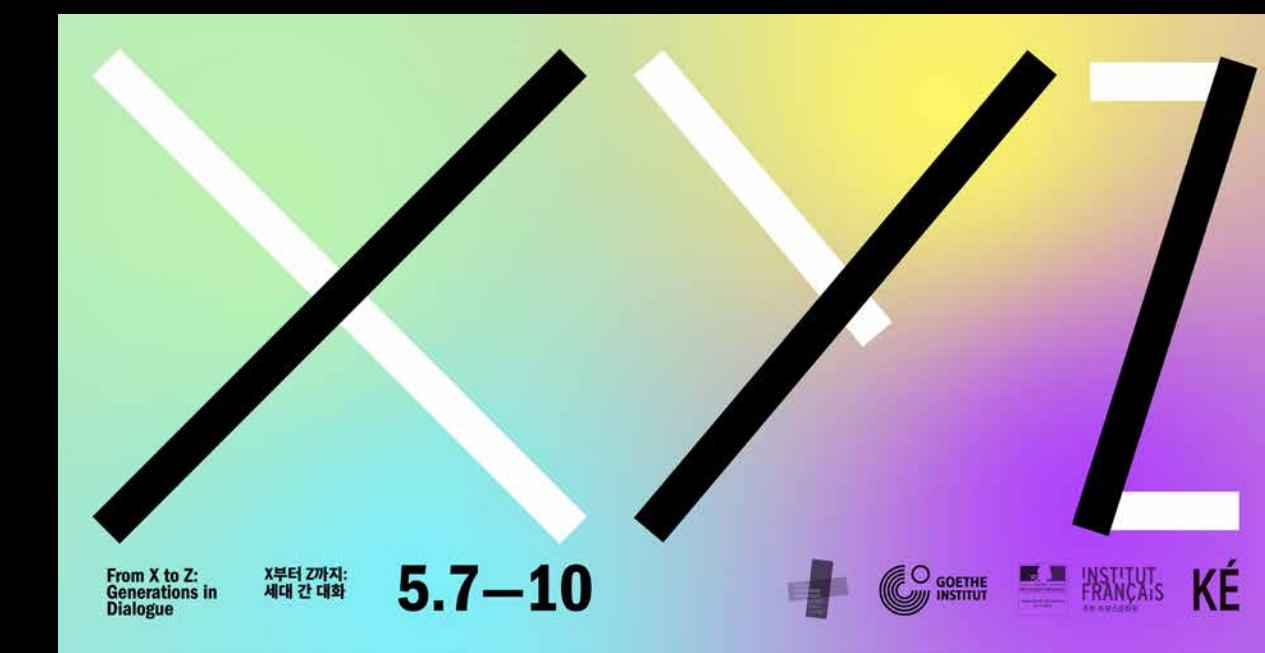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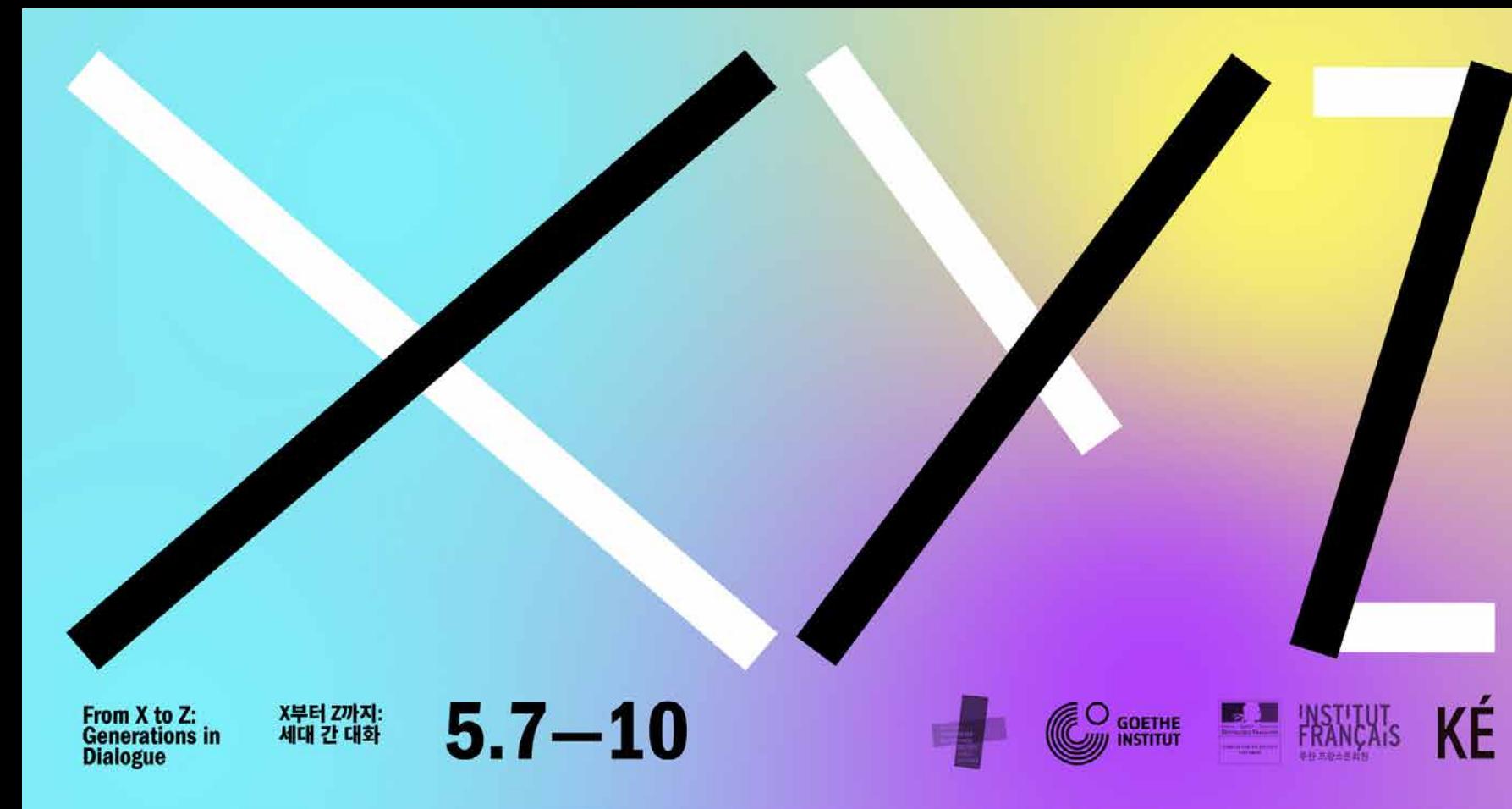
Goethe-Institut Seoul, Auditorium
주한독일문화원, B1 강당
19:30

5.10
Dinner
Conversation
“Dialogue
into action”
디너 테이블토크:
대화에서 행동으로

French Embassy in Korea
주한프랑스대사관
19:00







녹색상담소

2019

생태환경문화 월간지 작은것이 아름답다
독자들과 시민들이 보내온 환경을 지키는
질문들과 답을 엮은 '녹색상담소' 단행본 디자인

녹색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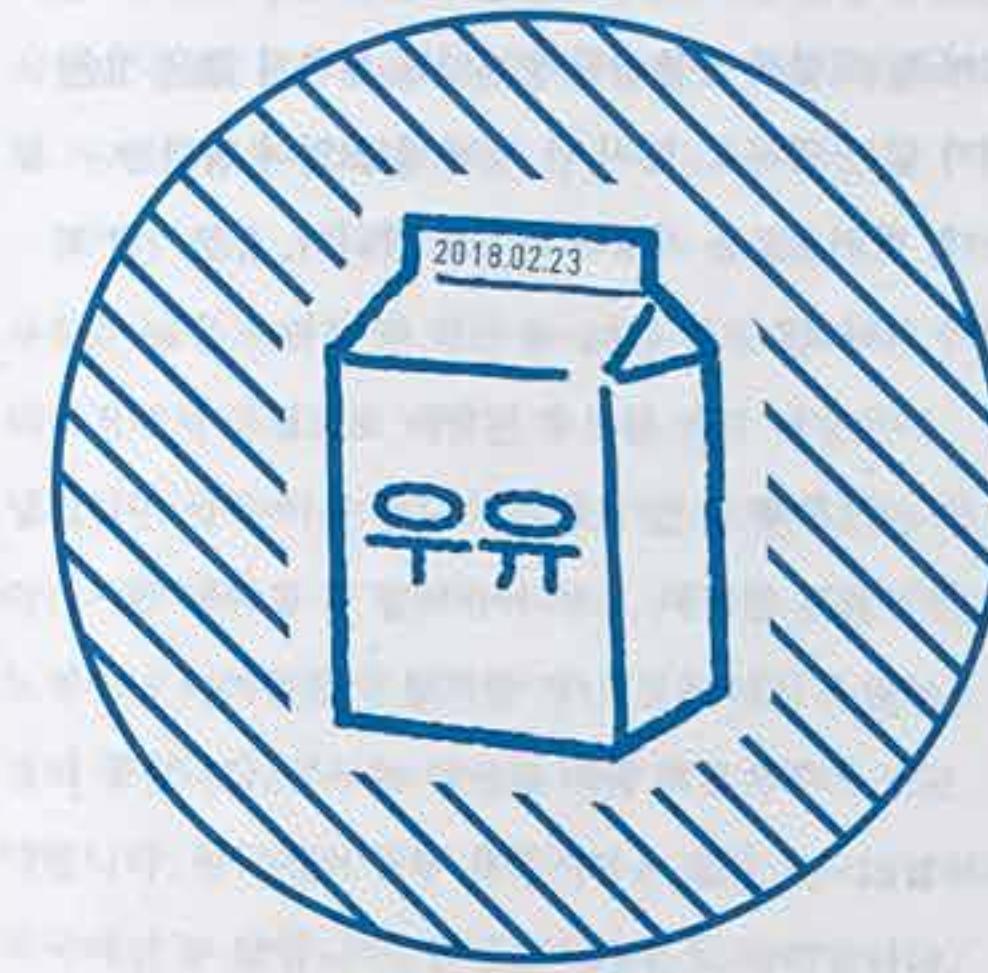
작은것이 아름답다 역음

잘 때, 외출할 때는 일회용을, 집에서 생활할 때는 천기저귀를 병행해 쓰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리고 세탁이 어려우시면 믿을 만한 천기저귀 세탁 배송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회용 기저귀 구입비용보다 훨씬 싸고 아기 건강과 환경에 이로운 실천입니다. ●

이지현

재단법인 숲과 나눔 사무처장

유통기한 꼭 지켜야 하나요?



유통기한 꼭 지켜야 하나요?

2.3

어떻게 바꿀까요?



늘인다고 했으나 여전히 염화칼슘과 소금에 의존하는 형편입니다. 멀리 보면 당장의 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을 정부와 시민 모두 공감하면서 제설기준을 정하고, 무엇보다 일부러 눈을 도로에서 녹이느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경오염이 없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작은것이 아름답다

편집부

교배나 교잡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다음 세대가 불임이 됩니다. 종자개량도 이런 방식으로 이뤄지죠. 교배나 교잡이 가능한 단위 안에서 만듭니다. 때로 돌연변이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유전자조작은 이 '과' 단위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생물학으로 불가능한 것을 사람이 조작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미생물 가운데 비티균(Bt)은 해충 애벌레를 죽게 만듭니다. 유기농에서 미생물농약으로 많이 쓰이죠. 이 균이 애벌레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균 유전자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만을 뽑아내 콩, 옥수수, 유채, 면화 같은 것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농작물도 벌레를 죽이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살충성 지엠오'입니다. 미생물과 식물의 '과' 단위를 넘어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양한 지엠오가 만들어지는데, 사람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전한지는 증명되지 않아 두려운 겁니다. ●

김은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음식물 쓰레기 자원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

얼마 전 청주 외곽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광역쓰레기 소각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땅덩어리에 웬 쓰레기가 이리도 많이 쌓이는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직접 보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자원화시설이란 명칭은 붙었지만 자원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잘못 때문이라는 말만 되풀이 해야 하는지… 이미 침출수 해양투기도 금지되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기계로 비틀어 물기를 짜내고 있더군요. 고스란히 물 오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쓰레기 처리 시설과 기계를 늘리는 것은 답이 아닐 텐데요. 음식물 쓰레기 자연순환정책이 왜 실행 안 되는지,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구인

!

음식물이 쓰레기가 되는 과정은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생활 식습관과 음식문화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인식과 가치가 두텁지 못한 데 있습니다. 여기에 정책으로 뒷받침되는 강력한 규제와 순환체계가 없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크게 사료로 쓰는 방법, 퇴비로 만드는 방법,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갓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곧바로 사료로 쓸 수 있지만,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는 부패된 경우가 많아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가공하는 공정을 보면 크게 비닐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물기를 짜내는 공정, 건조나 발효 같이 이용목적에 따라 가공하는 공정이 구분됩니다.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에는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쓰레기까지 같이 버리는 경우도 많아 이런 이물질들은 걸러내어야만 합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압력밥솥까지 섞여 들어온 경우도 봤다고 합니다.

2-7

물기를 짜내는 '탈수공정'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에는 평균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정도로 수분이 많은 탓에 효율 있는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이 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125



1 어떤 것이 이로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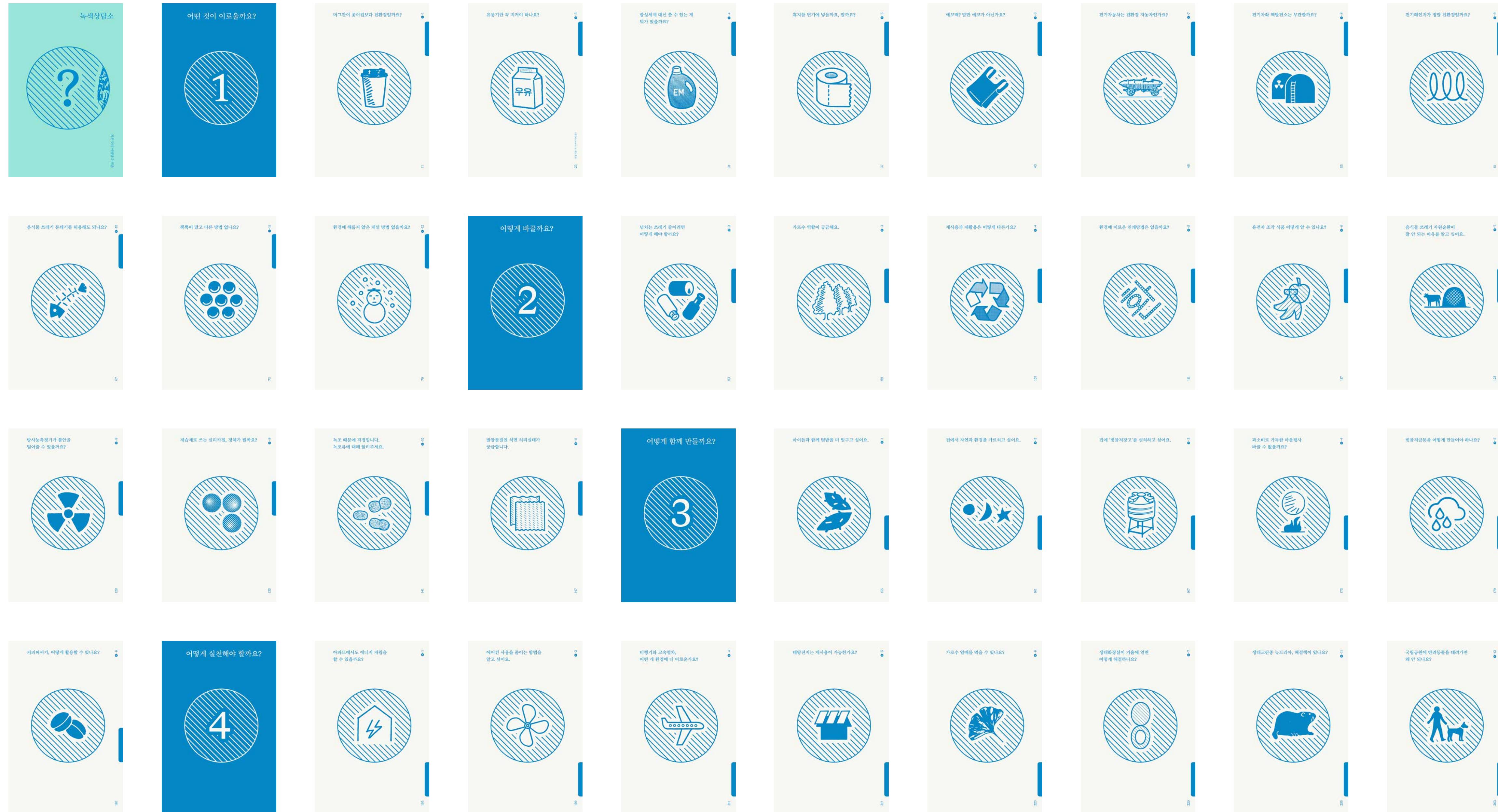
- | | |
|-------------------------------|----------------------------------|
| 어그잔이 종이컵보다 친환경일까요? 11 |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더 일구고 싶어요. 155 |
| 천기지귀와 종이기지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어요. 17 | 집에서 자연과 환경을 가르치고 싶어요. 161 |
| 유통기한 꼭 지켜야 하나요? 23 | 집에 '벗물저장고'를 설치하고 싶어요. 167 |
| 합성세제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1 | 과소비로 가득한 마을행사 바꿀 수 없을까요? 173 |
| 휴지를 번기에 넣을까요, 말까요? 37 | 벗물저금통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179 |
| 에코백? 말만 에코가 아닌가요? 43 | 커피찌꺼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185 |
|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인가요? 49 | 4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
| 전기차와 핵발전소는 무관할까요? 55 | 아파트에서도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을까요? 193 |
| 전기레인지가 정말 친환경일까요? 61 | 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199 |
|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허용해도 되나요? 67 | 컴퓨터 에너지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5 |
| 특특이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73 | 비행기와 고속열차, 어떤 게 환경에 더 이로운가요? 211 |
| 환경에 해롭지 않은 제설 방법 없을까요? 79 | 태양전지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217 |

2 어떻게 바꿀까요?

- | | |
|-------------------------------------|-----------------------------------|
| 친환경 돌잔치, 방법이 없을까요? 87 | 가로수 열매를 먹을 수 있나요? 223 |
| 넘치는 쓰레기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93 | 생태화장실이 거울에 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229 |
| 가로수 억함이 궁금해요. 99 | 재활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35 |
| 재사용과 재활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105 | 유기농이 비싼 이유를 알고 싶어요. 243 |
| 환경에 이로운 인쇄방법은 없을까요? 111 | 말벌은 사람과 공존할 수 없는 해충인가요? 249 |
| 유전자조작 식품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17 | 생태교란종 뉴트리아, 해결책이 있나요? 255 |
|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123 | 국립공원에 반려동물을 데리가면 왜 안 되나요? 263 |
| 방사능측정기가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까요? 129 | 제습제로 쓰는 실리카겔, 정체가 될까요? 135 |
| 제습제로 쓰는 실리카겔, 정체가 될까요? 135 | ISBN 978-89-963600-7-0 16,500원 |
| 녹조 때문에 걱정입니다. 녹조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141 | |
| 발암물질인 석면 처리실태가 궁금합니다. 147 | |

3 어떻게 함께 만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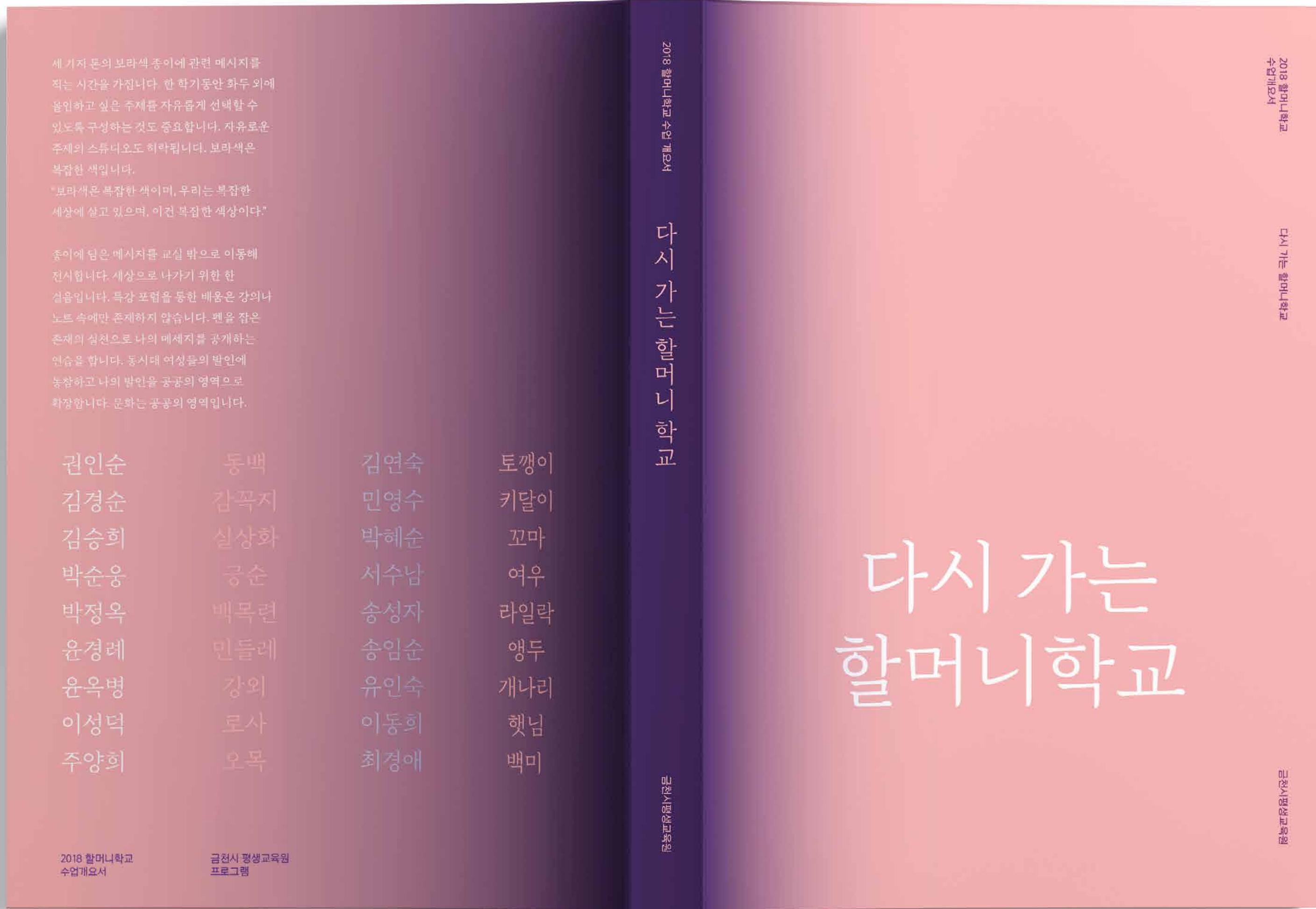




다시 가는 할머니학교

2018 — 2019

금천구청에서 2018년 1년동안 진행해온
‘할머니학교’ 커리큘럼들을 바탕으로
엮은 교재 책자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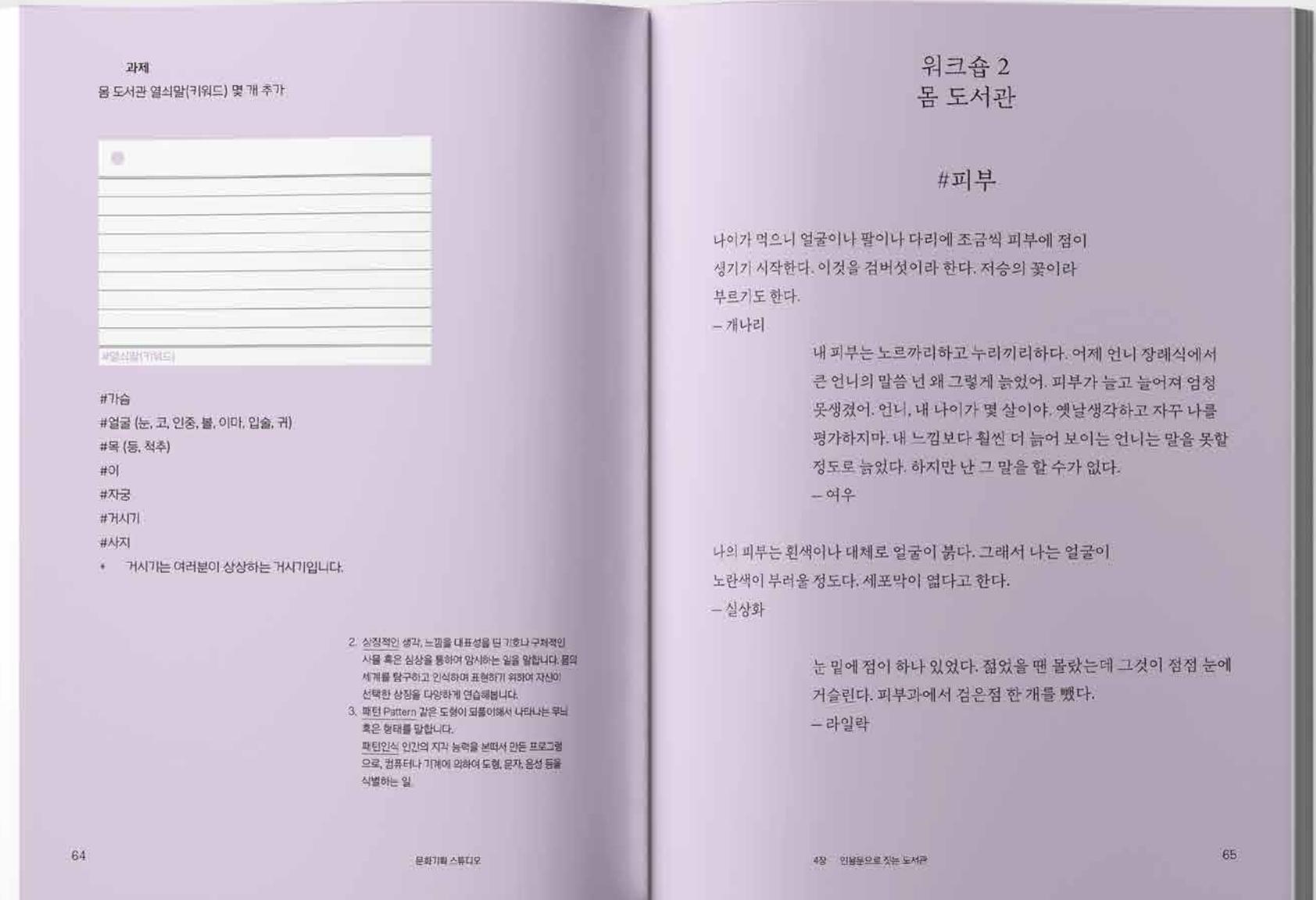


1장 컬러코드



2018 할머니학교 백화점 할머니

할머니학교는 입학식부터 한 가지 색의 드레스코드가 있습니다. 2017년 시작된 문화입니다. 문화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자연상태에서 빛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풍유, 전달이 되는 행동 양식. 가장 넓은 의미에서 문화는 자연에 대립되는 개념이고, 인류가 유인원의 단계에서 벗어나 인간으로 진화하면서부터 이루어낸 모든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문화는 사회를 통해 반영되고 교육되고 사회 현상과 맞물려 조금씩 변화를 거듭합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문화는 저마다 다른 역사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의 차이나 문화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상적인 사회는 단일한 하나님의 문화보다는 서로 다른 문화가 적절히 섞여 풍부한 삶의 환경을 끊임없이 만들어 낼니다. 사소하지만 어떤 문화적인 약속들이 공통체에 의해 유지되고 사라지기도 하다가, 삶의 환경에 지속적으로 정착이 되면 한 시대나 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로 기억됩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문화적 토양이 풍부합니다. 문화기획은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보는 실험적인 스튜디오



과제
월도서관 열쇠암(키워드) 몇 개 추가



- #가슴
- #얼굴 (눈, 고, 인증, 불, 이마, 입술, 귀)
- #목 (등, 척추)
- #이
- #자궁
- #거시기
- #사지
- * 거시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시기입니다.

2. 실질적인 생활 노력을 대표성을 딴 기호나 구체적인 사용 혹은 상상을 통하여 알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물의 세계를 탐구하고 간식이며 표현하기 위하여 자료와 선택한 상자를 디자인해 만들었습니다.
3. 패턴 Pattern 같은 도형이 되풀이해서 나타나는 무늬 혹은 형태를 말합니다.
패턴인식 인지의 차지 능력을 높이면서 인문 프로그램으로, 꿈틀거리기기에 대하여 도형, 문자, 음성 등을 살피하는 일

나이가 먹으니 얼굴이나 팔이나 다리에 조금씩 피부에 점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것을 검버섯이라 한다. 저승의 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 개나리

내 피부는 노르끼하고 누리끼하다. 어제 언니 장례식에서 큰 언니의 말씀 낸 왜 그렇게 늙었어. 피부가 늙고 늘어져 엄청 못생겼어. 언니, 내 나이가 몇 살이야. 옛날 생각하고 자꾸 나를 평가하잖아. 내 느낌보다 월씬 더 늙어 보이는 언니는 말을 못할 정도로 늙었다. 하지만 난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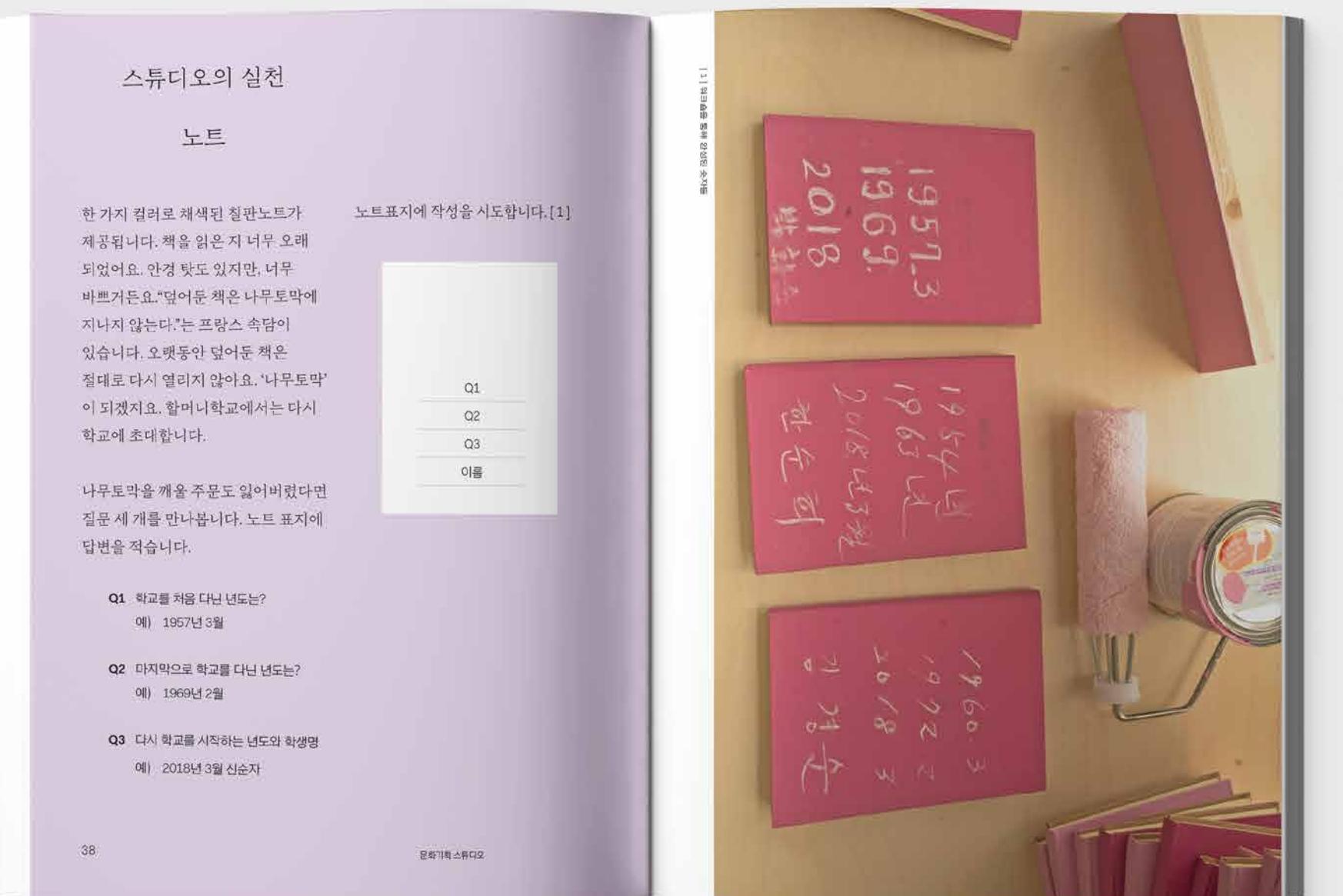
- 여우

나의 피부는 흰색이나 대체로 얼굴이 붉다. 그래서 나는 얼굴이 노란색이 부러울 정도다. 세포막이 없다고 한다.

- 신상화

눈 밑에 점이 하나 있었다. 잡았을 땐 블랐는데 그것이 점점 눈에 거슬린다. 피부과에서 검은점 한 개를 뺐다.

- 라일락



스튜디오의 실천

노트

한 가지 컬러로 채색된 칠판노트가 제공됩니다. 책을 읽은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안경 탓도 있지만, 너무 비쁘거든요.”덜어둔 책은 나무토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프랑스 속담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덜어둔 책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아요. ‘나무토막’이 되겠지요. 할머니학교에서는 다시 학교에 초대합니다.

나무토막을 깨울 주제도 알아버렸다면 질문 세 개를 만나봅니다. 노트 표지에 답변을 적습니다.

Q1. 학교를 처음 다닌 날도는?
예) 1957년 3월

Q2. 마지막으로 학교를 다닌 날도는?
예) 1969년 2월

Q3. 다시 학교를 시작하는 날도와 학생명
예) 2018년 3월 신순자



나는 원쪽 다리(종아리)에 커다란 점이 있다. 할머니께 물어보니 삼신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손으로 때렸다고 하셨다.
그러니 자세히 보니 정말 손자국 같은 모양이다.

- 동백

#통증

...내가 아프니까 길거리에 다리 저는 사람이 눈에 보인다.
나도 절룩절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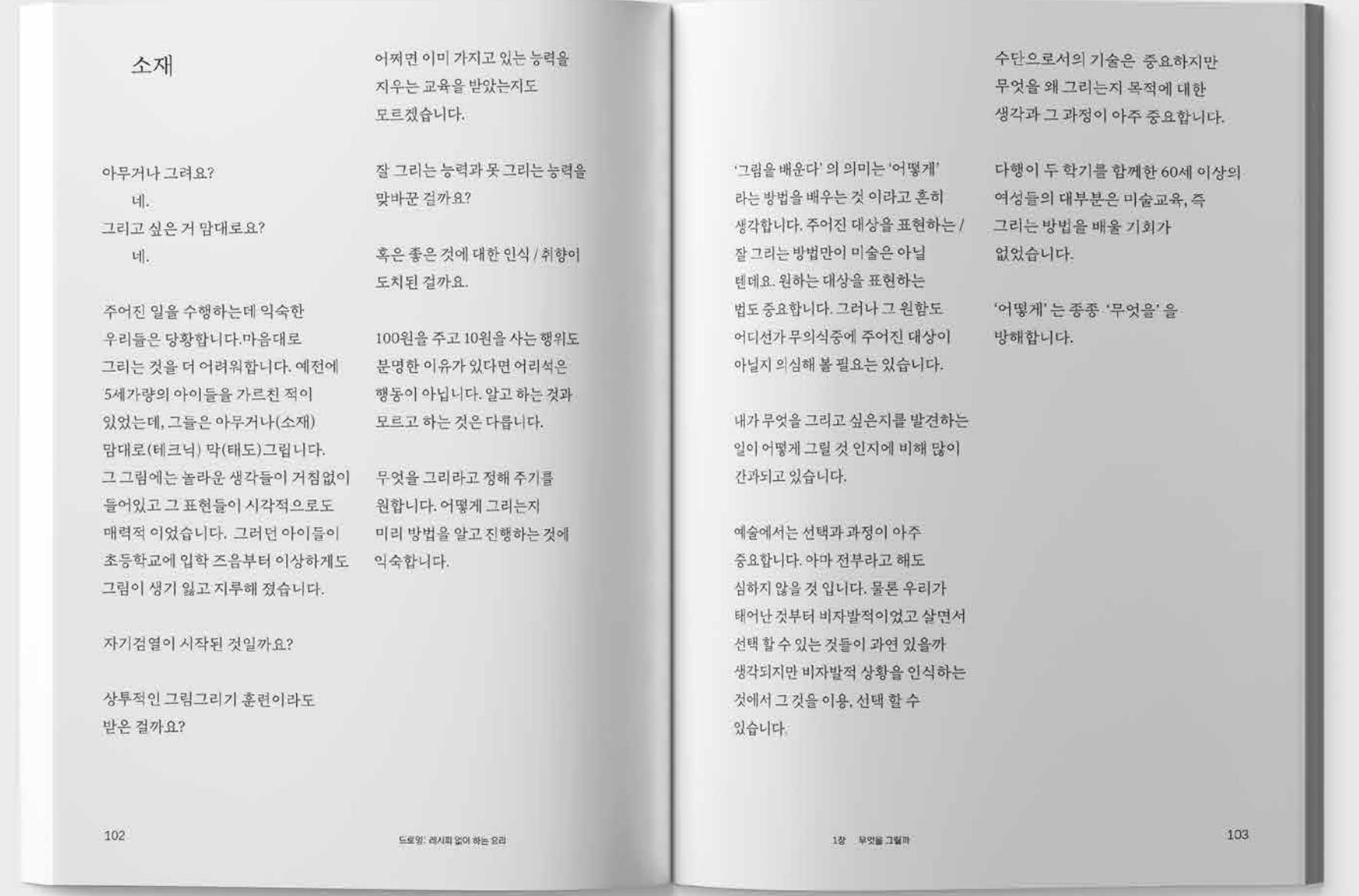
- 궁순이

“당신이 파먹은 별의 응고된 껌을 씹어 먹어요.”
- 강정 시집 「들려주려던 말이라 했지만」 p.147 / 토깽이 인용

“아버지의 죽음, 장례식 과정, 식구들의 표정이 보인다.”
- 아니 에르노 「남자의 자리」 p. 9 / 백목련 인용

#손

“손을 내민다. 언제든지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있다. 너는 손을 내밀다가 멈추었다. 다른 모습을 떠올리다가 마침 내밀었다. 손은 다른 사람과 인사하고 있다. 손은 다른 모습과 악수하고 있다. 그게 한 사람 이란 걸 알 때까지...”
- 김언 시집 「한 문장」 p. 64 / 궁순이 인용



소재

어쩌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우는 교육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거나 그려요?
네.
그리고 싶은 거 담대로요?

잘 그리는 능력과 못 그리는 능력을
맞바꾼 걸까요?
네.
혹은 좋은 것에 대한 인식 / 취향이
도치된 걸까요.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데 익숙한
우리들은 당황합니다. 마음대로
그리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예전에
5세가량의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거나(소재)
담대로(테크니) 막(태도) 그립니다.
그 그림에는 놀라운 생각들이 겨침없이
들어있고 그 표현들이 시작적으로도
매력적 이었습니다. 그러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 즈음부터 이상하게도
그림이 생기 일고 지루해졌습니다.

자기검열이 시작된 것일까요?

상투적인 그림그리기 훈련이라도
받은 걸까요?

수단으로서의 기술은 중요하지만
무엇을 왜 그리는지 목적에 대한
생각과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림을 배운다'의 의미는 '어떻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주어진 대상을 표현하는 /
잘 그리는 방법만이 미술은 아닙
네요. 원하는 대상을 표현하는
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함도
어디선가 무의식 중에 주어진 대상이
아님을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를 발견하는
일이 어떻게 그럴 것인지에 비해 많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예술에서는 선택과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전부라고 해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 비자발적이었고 살면서
선택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있을까
생각되지만 비자발적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 그것을 이용, 선택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는 종종 ‘무엇을’을
방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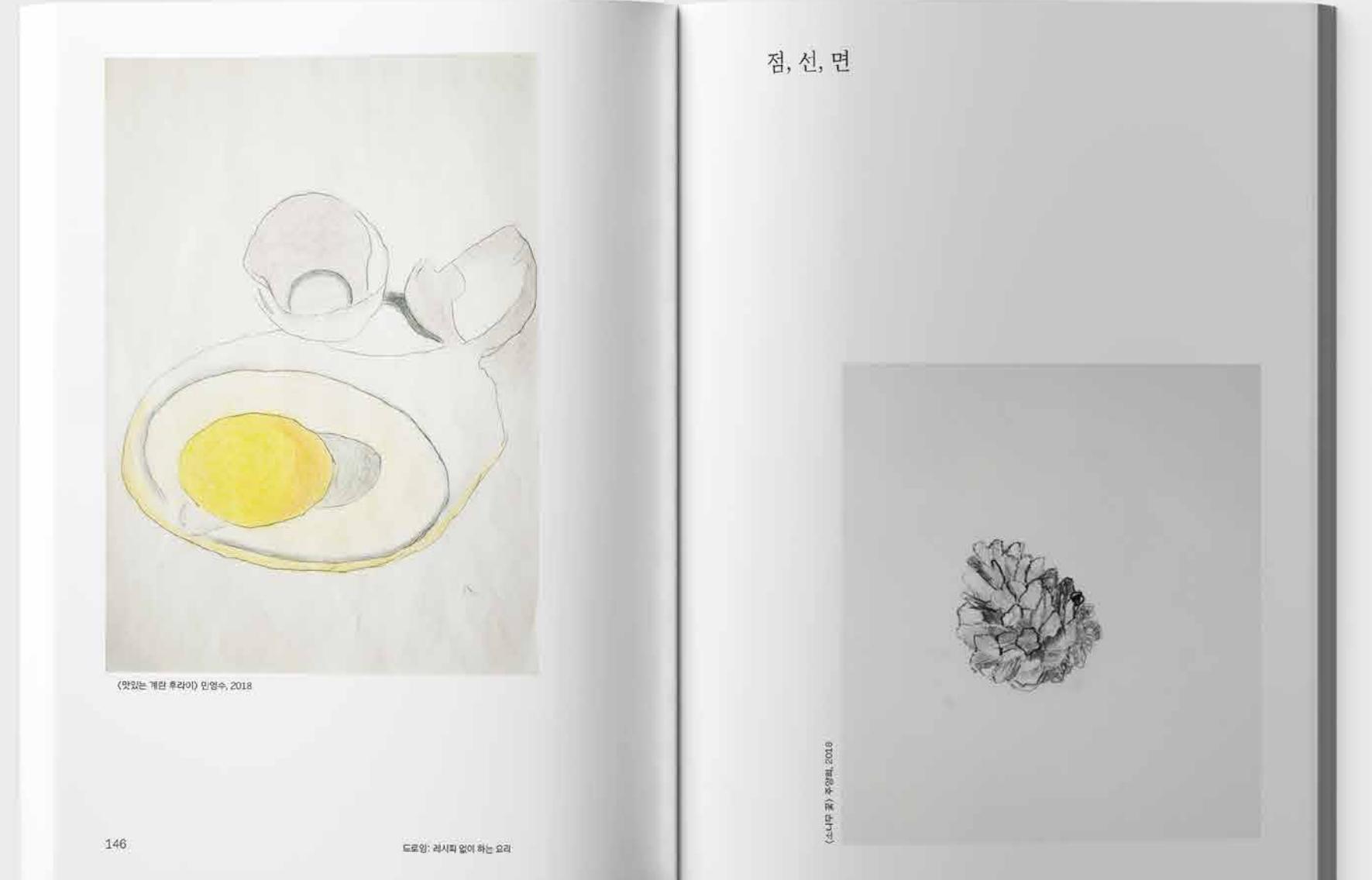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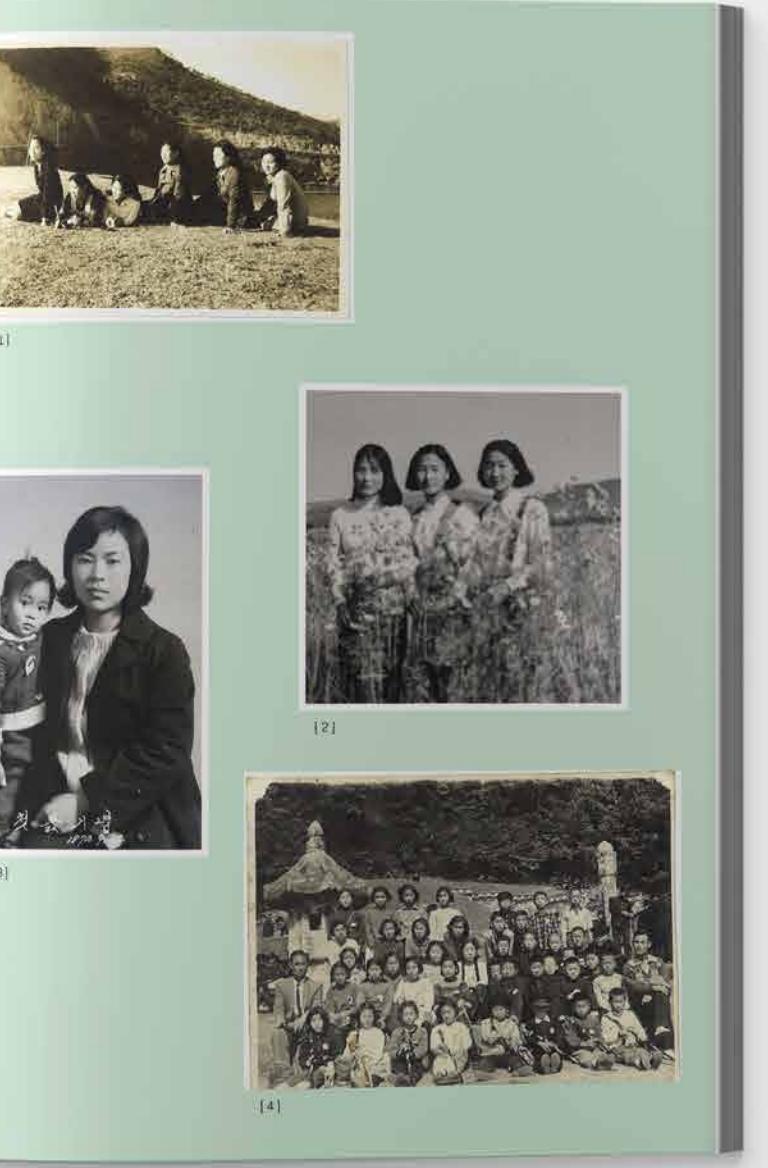
고향집은 5월이 되면 보리밭이 출렁이는 곳이었어요. 생각하면 따듯한
느낌이 들고 그리고 때로는 목에는 묵은 듯이 다셨던 집이었어요.
어머니도 그 시내에 글을 좋아하셨고, 아버지도 놀 한시 같은 것을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그는 과정에 알게 모르게 그런 감성이 녹아들었어요. 농에
선원 이런 시절 고향집이 농 마을에 있지요. 한우 마루에 형제들이 속 누우면
옥수수가 악 촌을 더럽아요.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고 좋았어요. 사과 속 샛은
정성에 친했어요. 고등학교 때였어요. 시골에 모스모스 편 곳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사진을 보니 저인 시간이 있었구나 하는 행복한 감정이
피어오릅니다.[2]

— 김경순 학생

첫 딸 낳고 풀 사진이에요. 그때는 너무 좋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첫
애니까 어째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사진관에 들어가서 찍었어요. 전북
김제 용설리라는 동네인데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기차를 타려면 한 시간
이상 눈길령을 걸어야 했어요. 버스는 없었어요. 예산가는 기차하고 김제에
있는 사진관에서 찍었어요. 옛날에는 사진을 찍는 걸 큰돈을 날비하는 줄
아시지 못하게 하셨어요. 버튼 일 있으면 평생을 대고 물려 나온 거였는데,
사진관에서 땅이 있었는지 크게 걸어 놓았나요. 시누가 그걸 보고 둘째를
거죠.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거짓말하고 찍었다고 엄청 혼났어요. 그때는
시누가 끔 미워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3]
— 박정숙 학생

어릴 때 경기도 양지에서 살았어요. 민스체재지에 있는 학교까지 거리면 30
분쯤 걸어서 갔어요. 친구들과 재활거리며 눈밭과 공동묘지를 지나서 갔던
기억이 나오요. 해구가 적었지만 달한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셔서
딸 엣이 아들 하나 5남매를 혼자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힘든 생활을 하셨지만
강한 분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사셨어요. 소를 키워서 자리를 공부시키고
사람 보내셨어요. 서로 학교 다니면서 소풀 메고 꿀 먹히던 데를 나갔어요.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힘들한 어머니가 당당하게 키우셨어요. 사진은

176 자연과 함께 천연의 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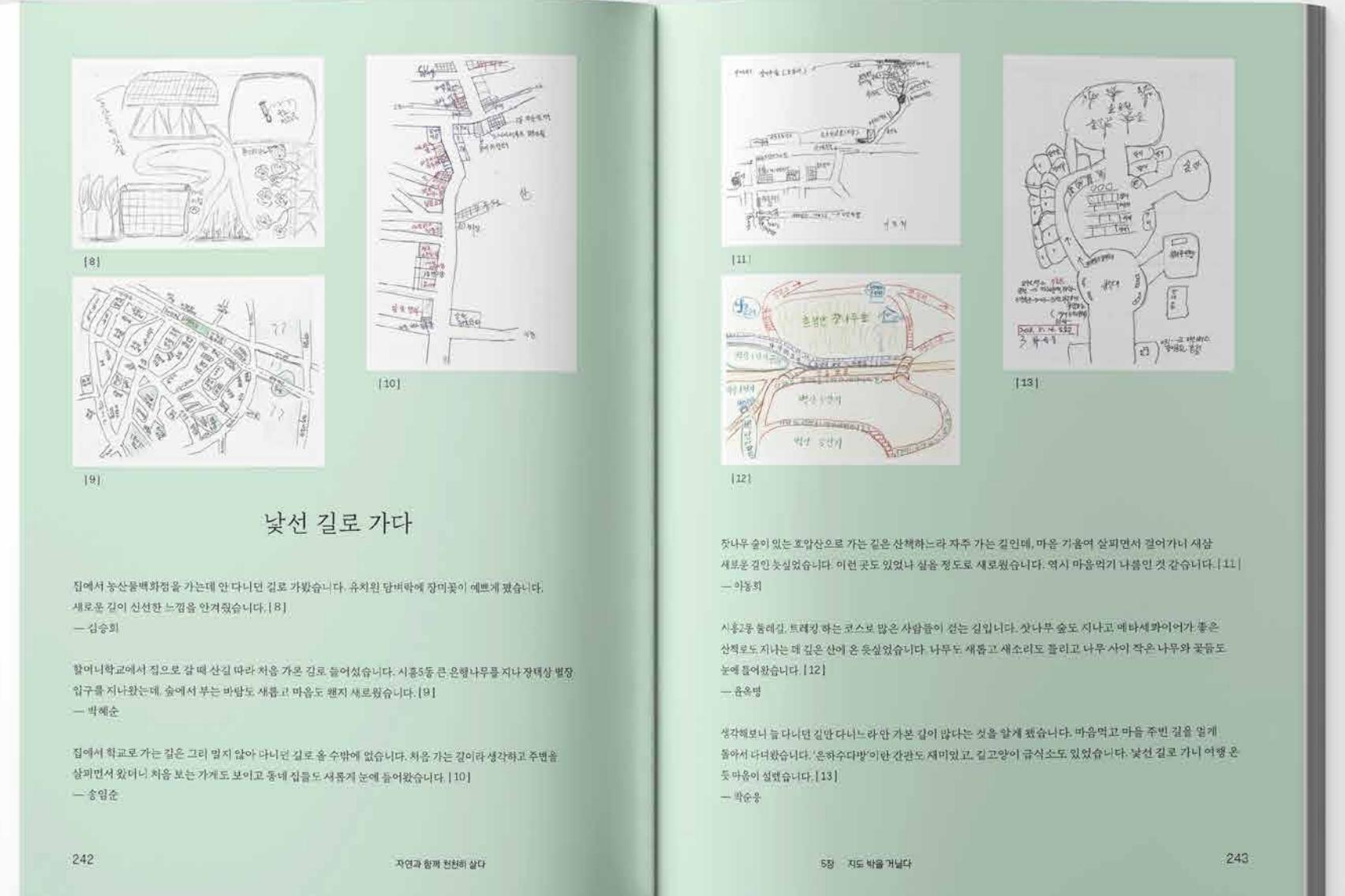


점, 선, 면

(벗기는 계란 후라이) 김영수, 2018

146 드로잉: 차시피 끌어 하는 오리

2018. 4. 20. 14:00



낯선 길로 가다

집에서 농산물 백화점을 가는데 안 다닌 길로 가았습니다. 유치원 담벼락에 잡여꽃이 예쁘게 핀습니다.
새로운 길이 신선히 느낌을 얻겨졌습니다.[8]

— 김승희

할머니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산길 따라 처음 가온 길로 들어섰습니다. 시름도 큰 운행나루를 지나 정색성 병장
입구를 지나왔는데, 숲에서 부는 바람도 새롭고 마음도 편지 새롭습니다.[9]

— 박제순

집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아 다닌 길로 옮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뒷이니 처음 보는 가게도 보이고 동네 짐들도 서둘러 눈에 들어왔습니다.[10]

— 송임준

242 자연과 함께 천연의 삶다

장나루 숲이 있는 조암산으로 가는 길은 산책하느라 자주 가는 길인데, 마을 가을에 살피면서 걸어가니 세상
새로운 길이 신선히 느낌을 얻겨졌습니다. 이런 곳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새로웠습니다. 역시 마을먹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11]
— 이동희

시흥2동 둘레길, 트레킹 하는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장나루 숲도 지나고 바다와 바이어가 좋은
산책로도 지나는 대길은 산야 온정길입니다. 나무도 새롭고 새소리도 흘리고 나무 사이 작은 나물과 꽃들도
눈에 끌어왔습니다.[12]

— 윤숙영

생각해보니 놀라운 걸 만난다느라 가쁜 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먹고 마을 주변 길을 걷게
될까 봐 더니원했습니다. '손하수다방'이란 간판도 새미있고, 놀고양이 금식소도 있었습니다. 낯선 길로 가니 여행
듯 마음이 설렜습니다.[13]

— 박승웅

243 자연과 함께 천연의 삶다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보고서

2018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NPO지원센터

주요 소셜미디어 채널인 뉴스레터, 페이스북,

블로그, 아카이브의 통계 현황을 나타낸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웹사이트 디자인

snpo.kr/sns_2018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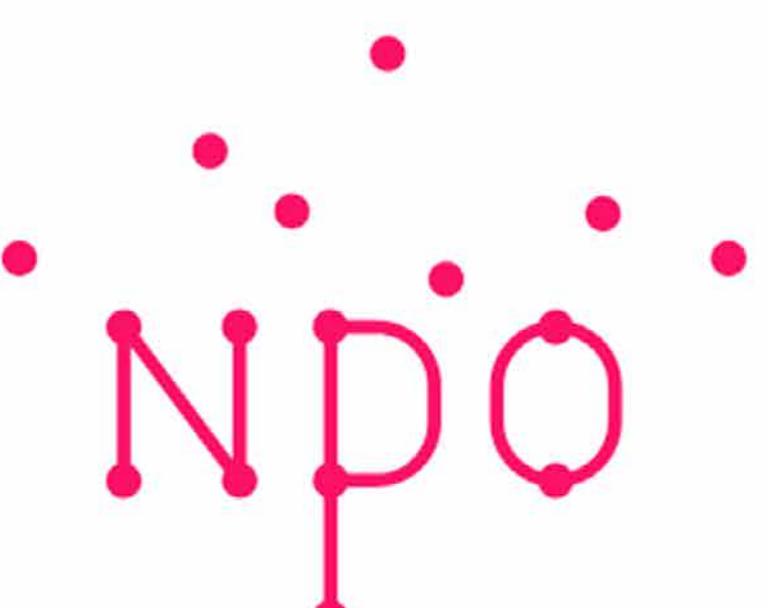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여러 채널을 통해 센터가 하고 있는 일들과 NPO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NPO 영역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나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시민사회가 만들어온 사회 변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센터가 가진 채널을 활용해왔어요.

이곳에서는 센터의 주요 채널인
[뉴스레터](#) [페이스북](#) [블로그](#) [아카이브](#)의
통계현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통계 수치로 센터를 만나보세요.

뉴스레터 ○
페이스북 ○
블로그 ○
아카이브 ○



snpo.kr/sns_2018

1 of 7

디자인 김재환, 최석환

2013—
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뉴스레터

1 / 6

숫자로 보는 데이터
뉴스레터 구독자수 그래프
오픈율 증감 그래프
가장 인기있었던 뉴스레터 Top 3
2018 뉴스레터 특징

서울시NPO지원센터
Newsletter #40
2017.9.1

2017 NPO 국제 컨퍼런스
2017.9.13 (WED)
Where does
change come from?
2017 NPO 파트너 페어
참가 기업 모집
2017 NPO 커뮤니티 페어
9월 이트심어 즐가 앤디
서울 시내회

센터 뉴스레터 구독하기

센터의 한 달 살이가 궁금하다면, 뉴스레터를 주목해주세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월 단위로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센터 행사 는 물론, NPO 영역의 다양한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2014년 4월 3일 센터는 첫 뉴스레터 발송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메일발송 서비스로는 오즈메일러를 이용하다 2016년에 메일chimp를 2019년부터는 스티비를 씁니다.

2 of 7

2013—
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6 / 6

2018 뉴스레터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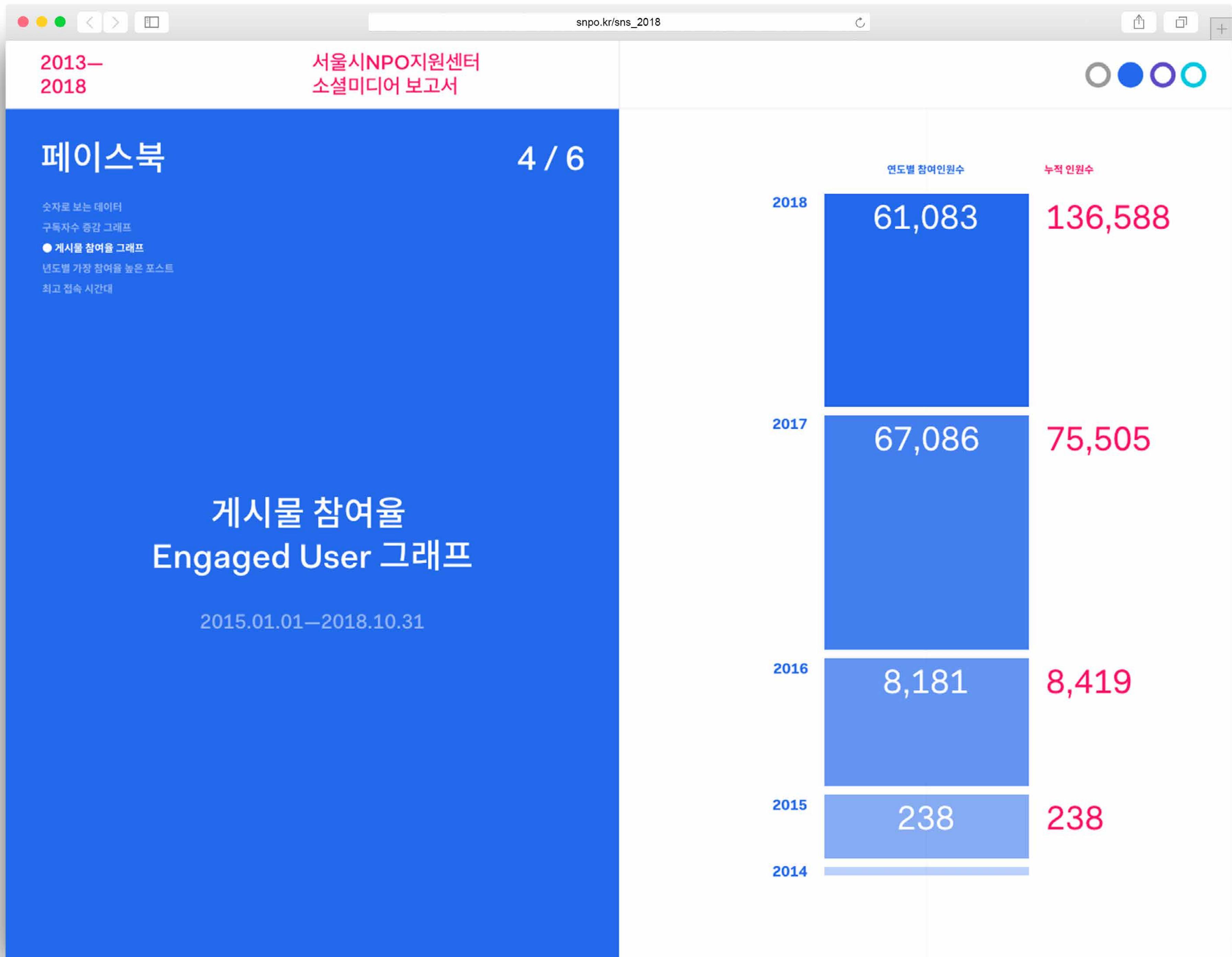
세부 내용을 콘텐츠별로 소개해 클릭을 유도했어요.

센터 구성원들의 에디터 노트와 그달의 사진을 넣었어요.

그달의 NPO소식과 신규 아카이브 자료를 빠짐 없이 실었어요.

추천하고 싶은 비영리 단체 뉴스레터 1위!
(2018년 6월 센터 뉴스레터 구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of 7



2013—
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블로그

2 / 6

● 숫자로 보는 데이터

콘텐츠수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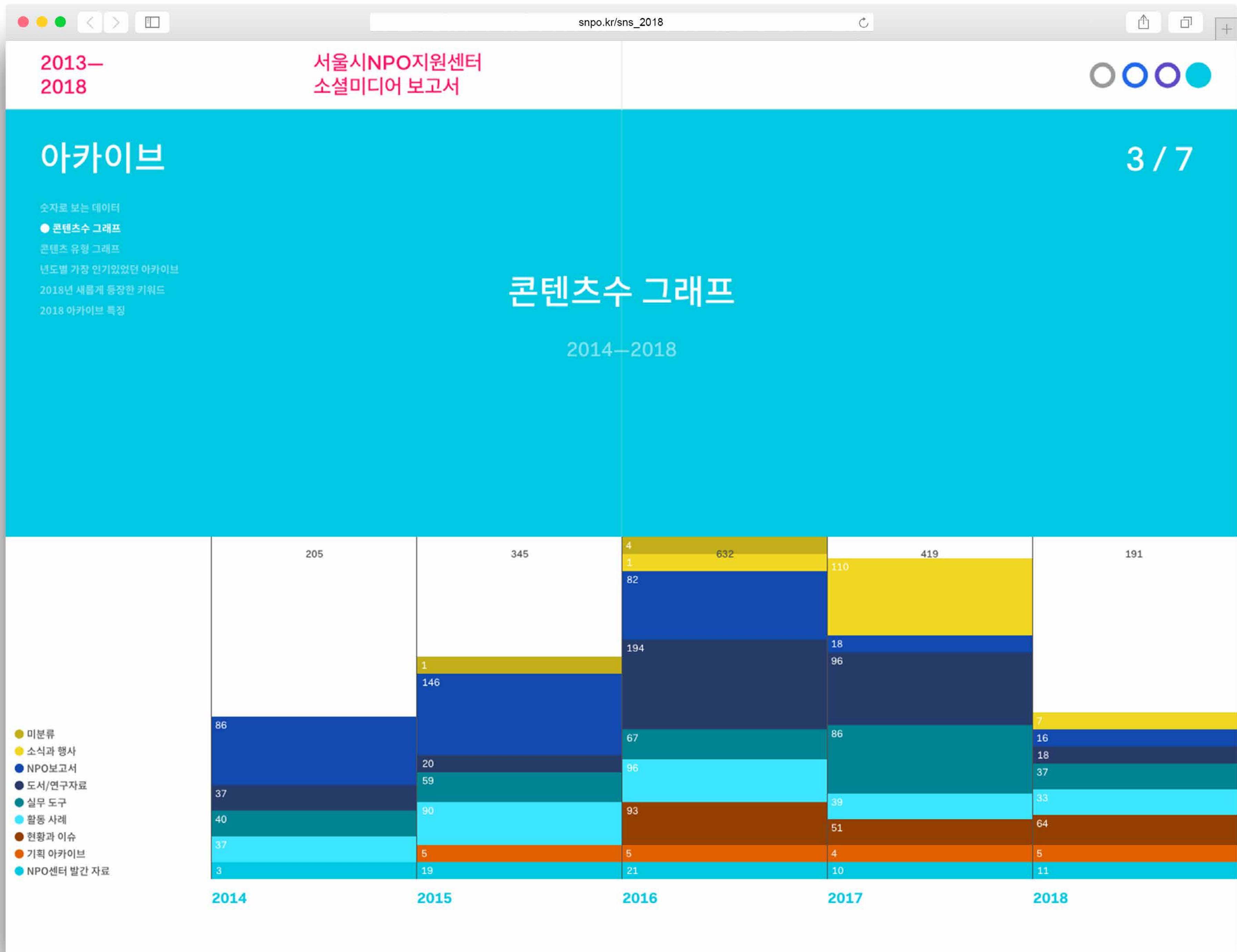
월별 조회수 그래프

년도별 가장 인기있었던 블로그 포스트

검색어 순위

숫자로 보는 데이터

| | |
|---|---|
| 방문자수 157,711 2016.1.1~2018.10.31 기준 | 연령대 25—29 2016.1.1~2018.10.31 기준 |
| 남:여 비율 32:68 2016.1.1~2018.10.31 기준 | 콘텐츠 개수 401 2016.1.1~2018.10.31 기준 |



2013—
2018

서울시NPO지원센터
소셜미디어 보고서

아카이브

6 / 7

숫자로 보는 데이터
컨텐츠수 그래프
컨텐츠 유형 그래프
년도별 가장 인기있었던 아카이브
● 2018년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
2018 아카이브 특징

2018년 새롭게 등장한 키워드

2013—2018

여성

성소수자

인권

평화

장애인

청소년

환경

커먼즈

환경디지털

리빙랩

조직관리

모금

리플렛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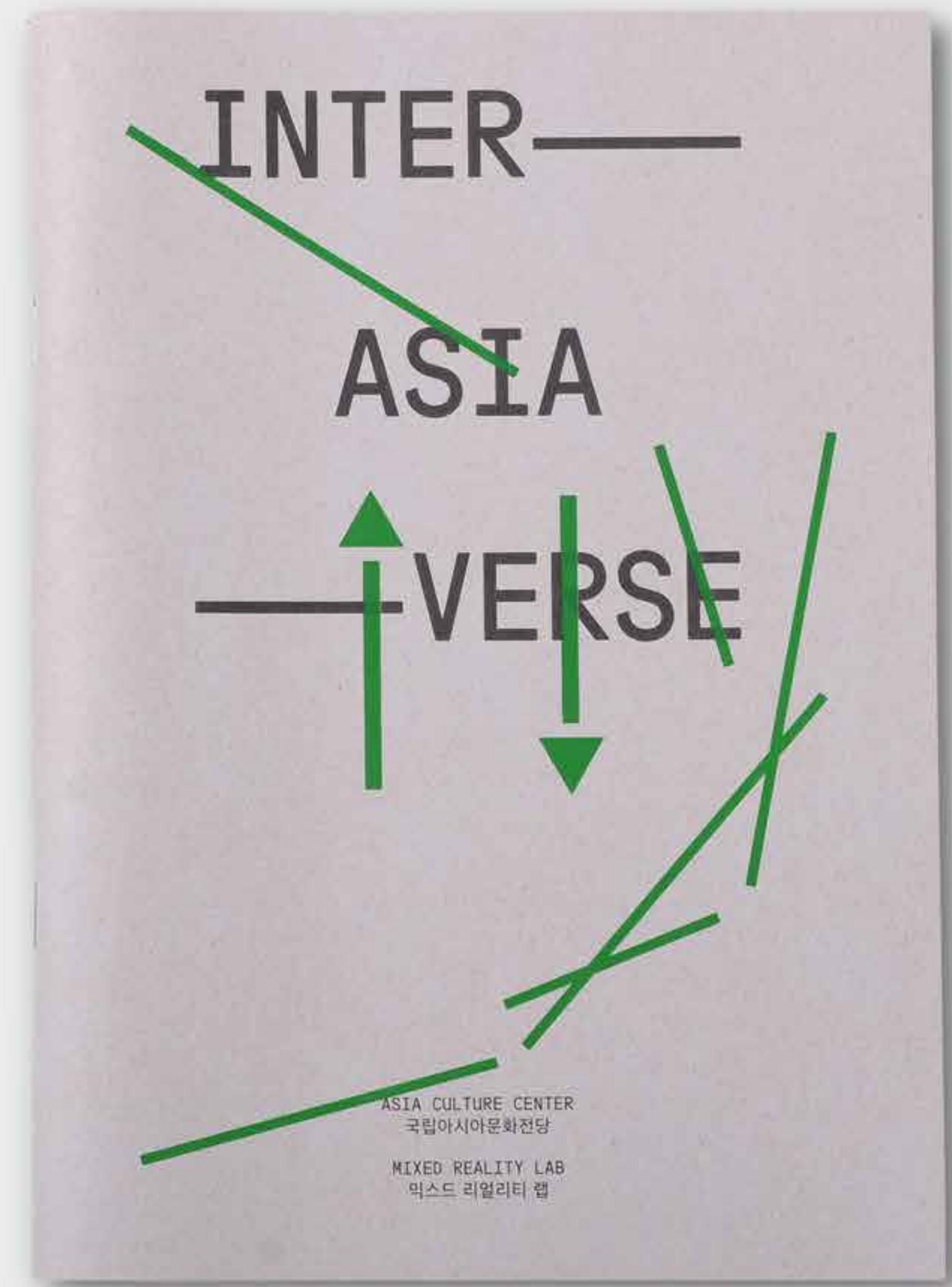
공익법인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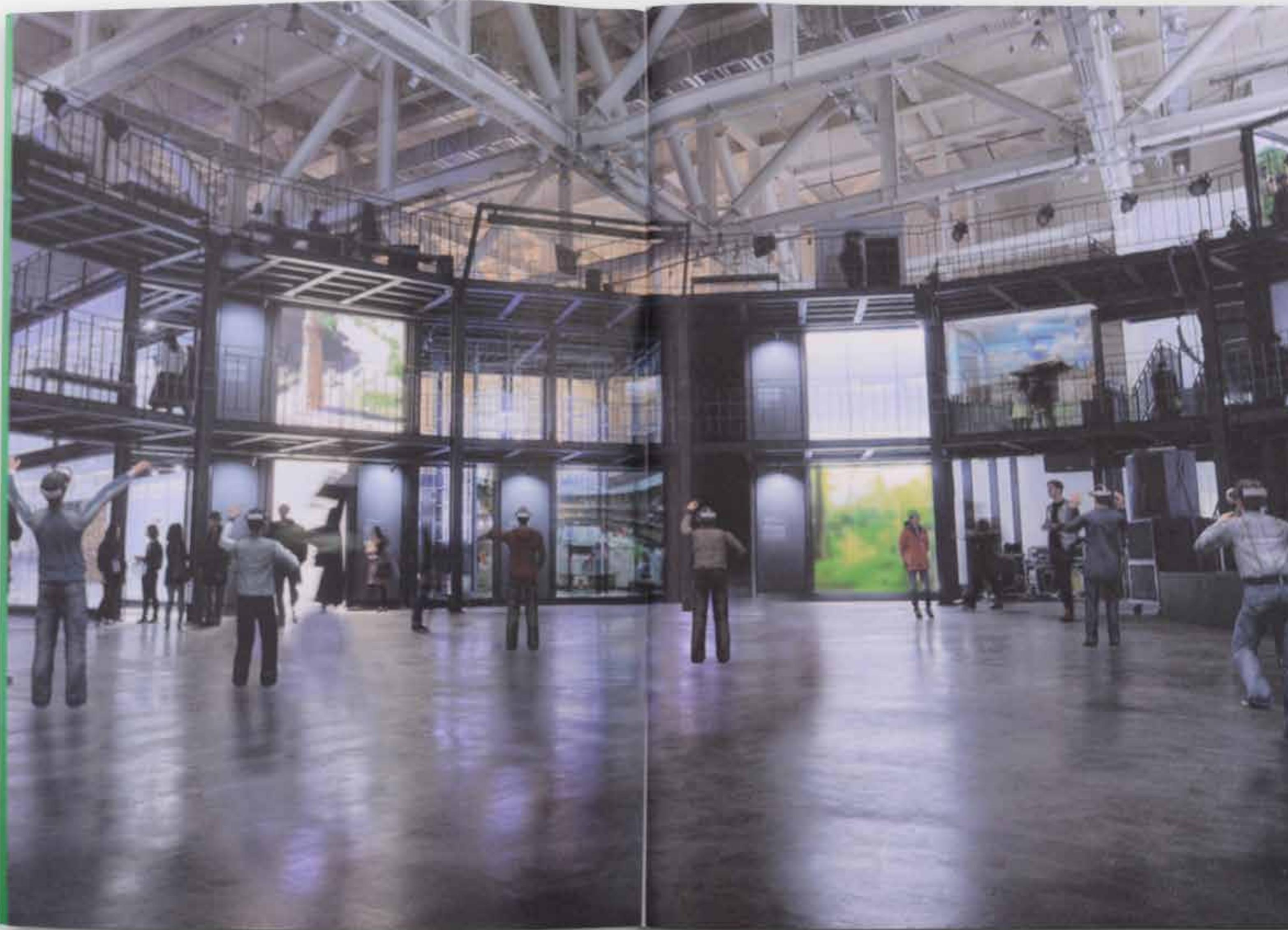
데이터저널리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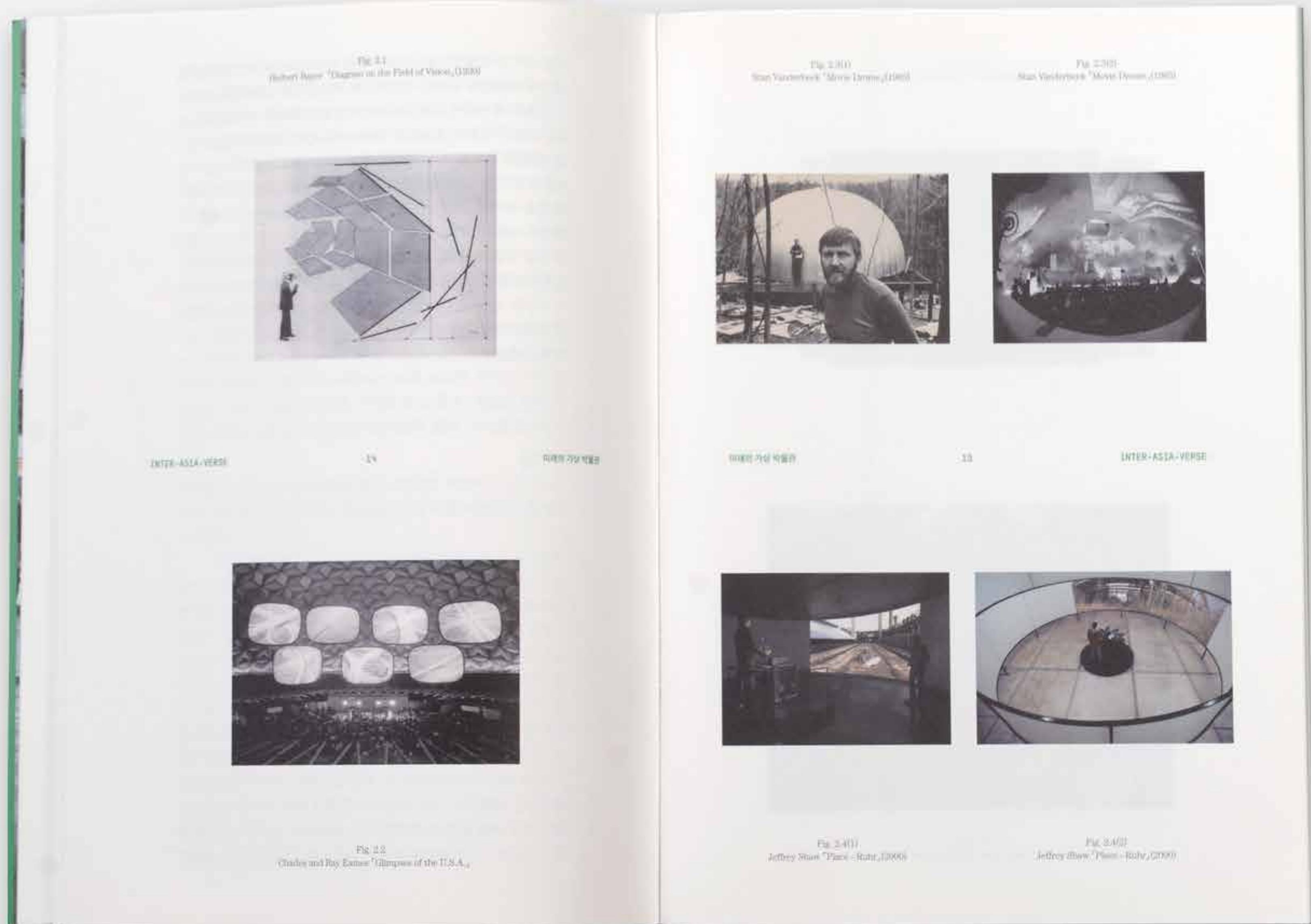
Inter-Asia-Ver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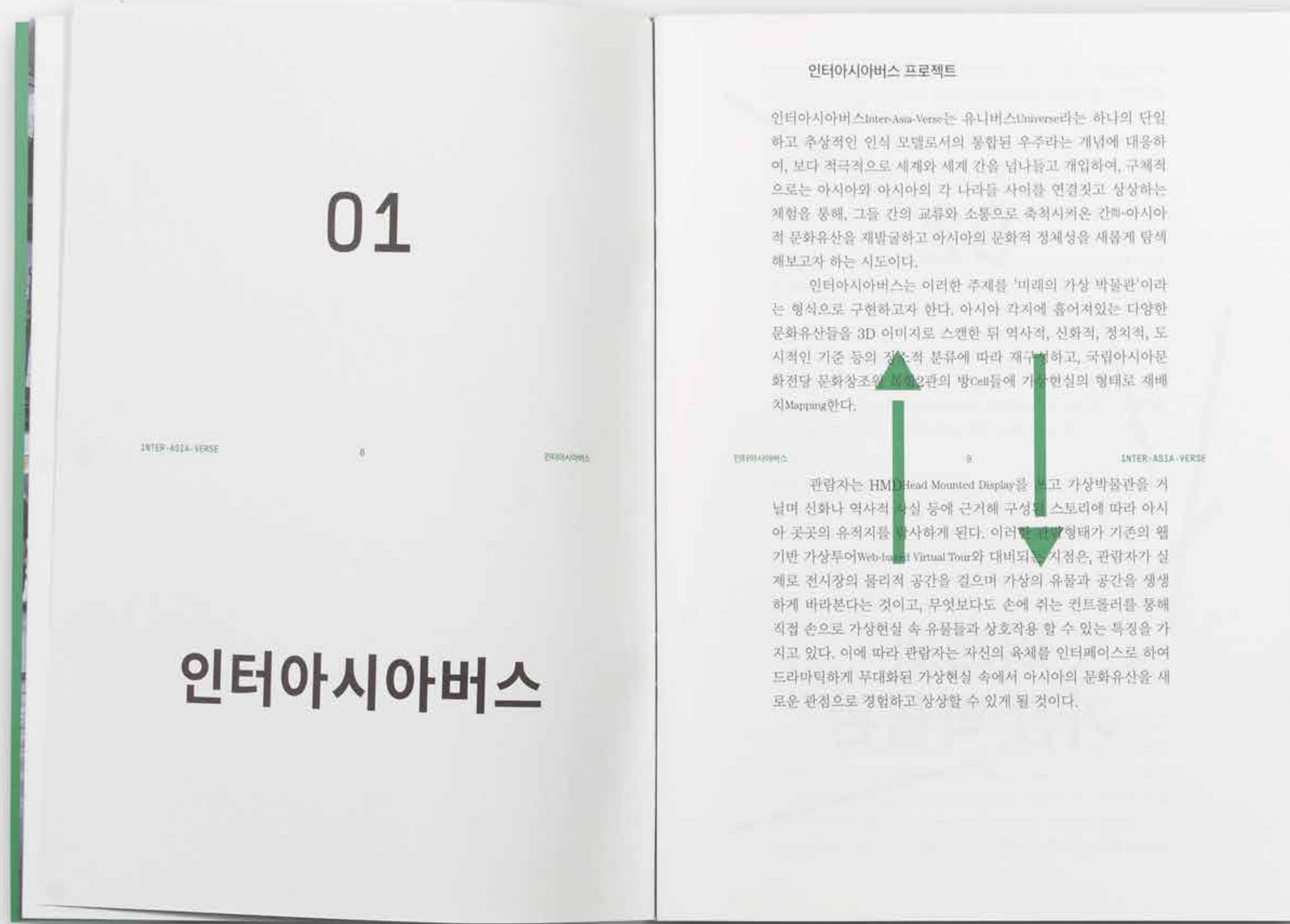
2016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아시아의
문화유산들을 주제로 한 가상 박물관 프로젝트
인터-아시아-버스 도록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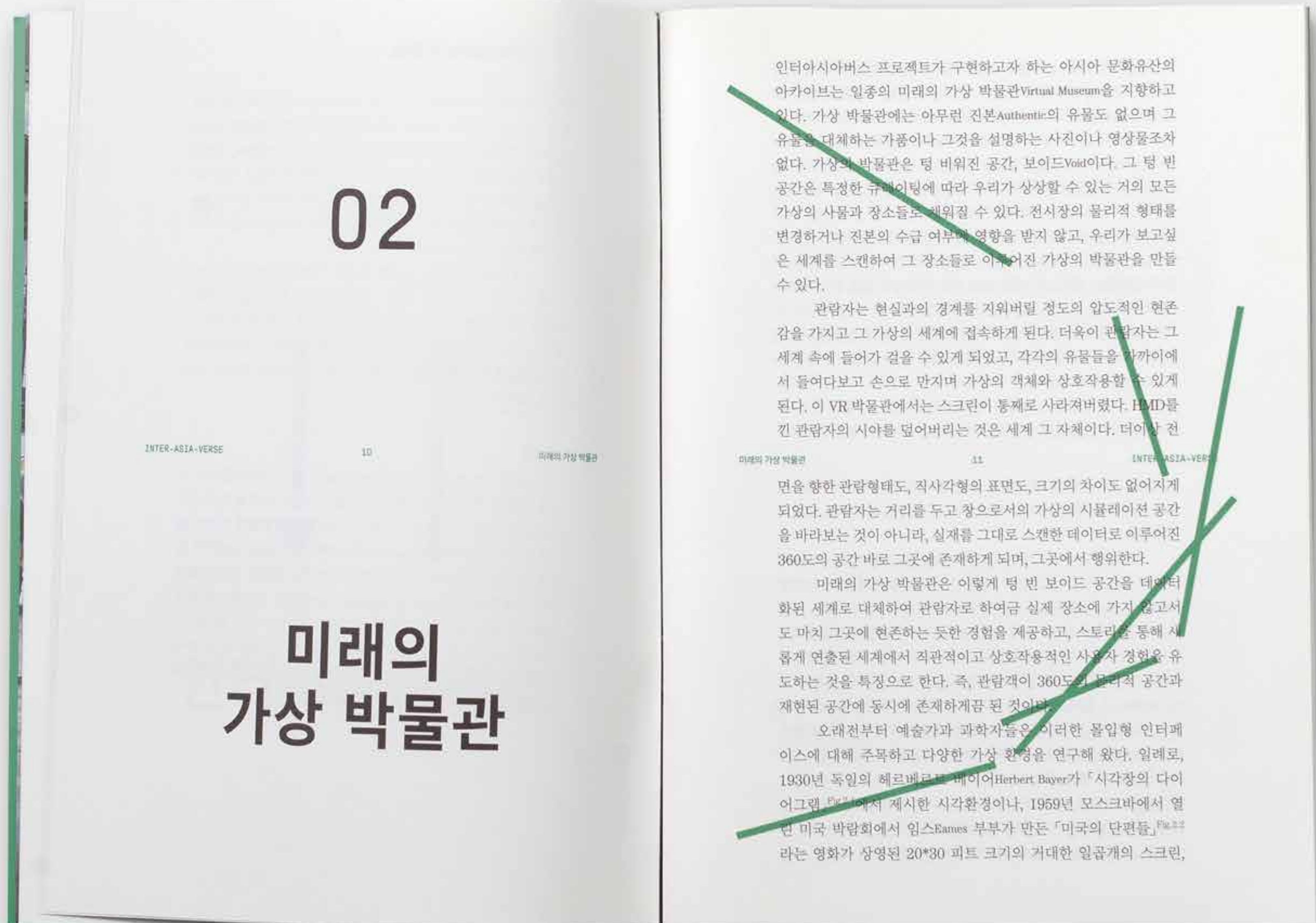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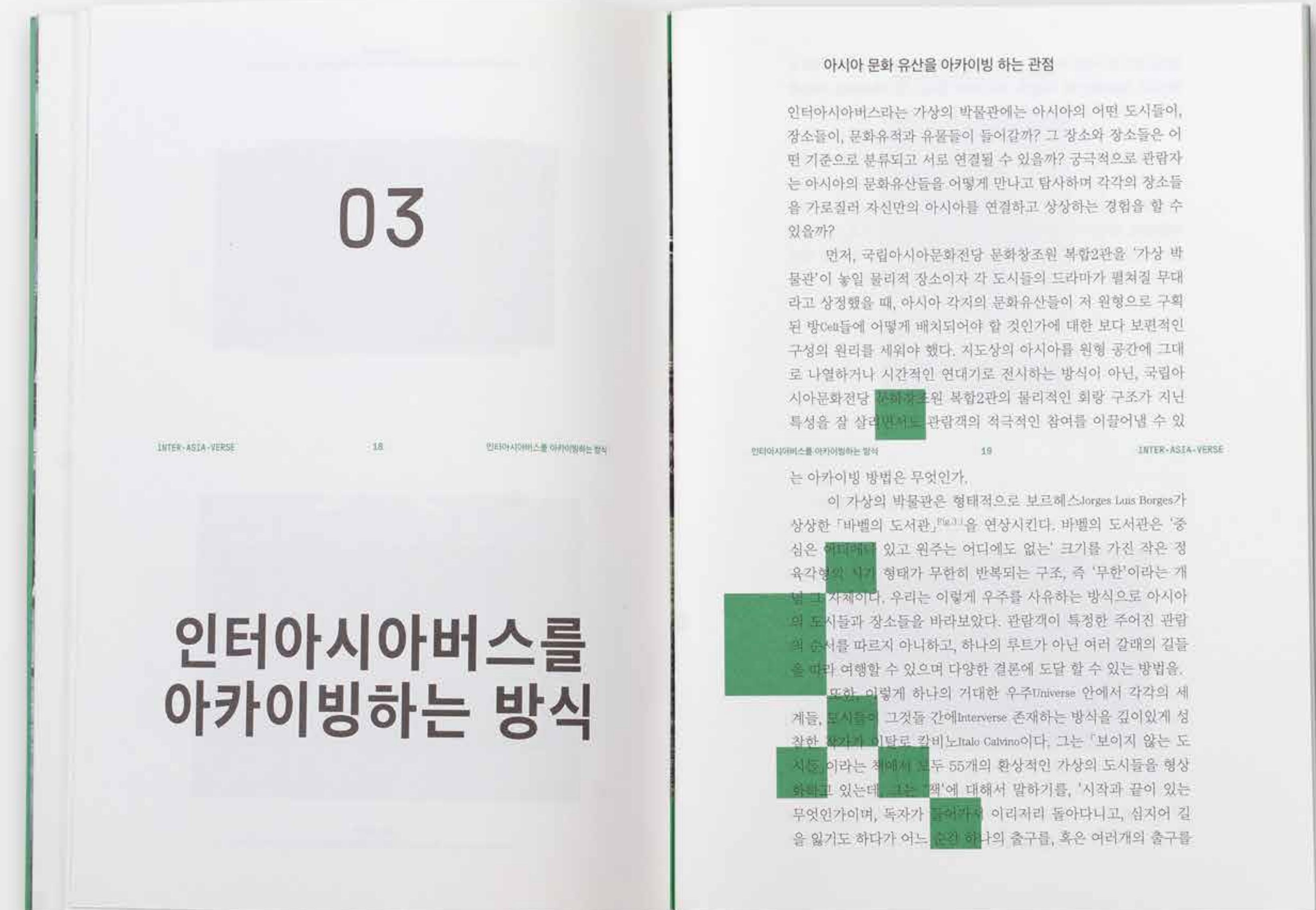
인터아시아버스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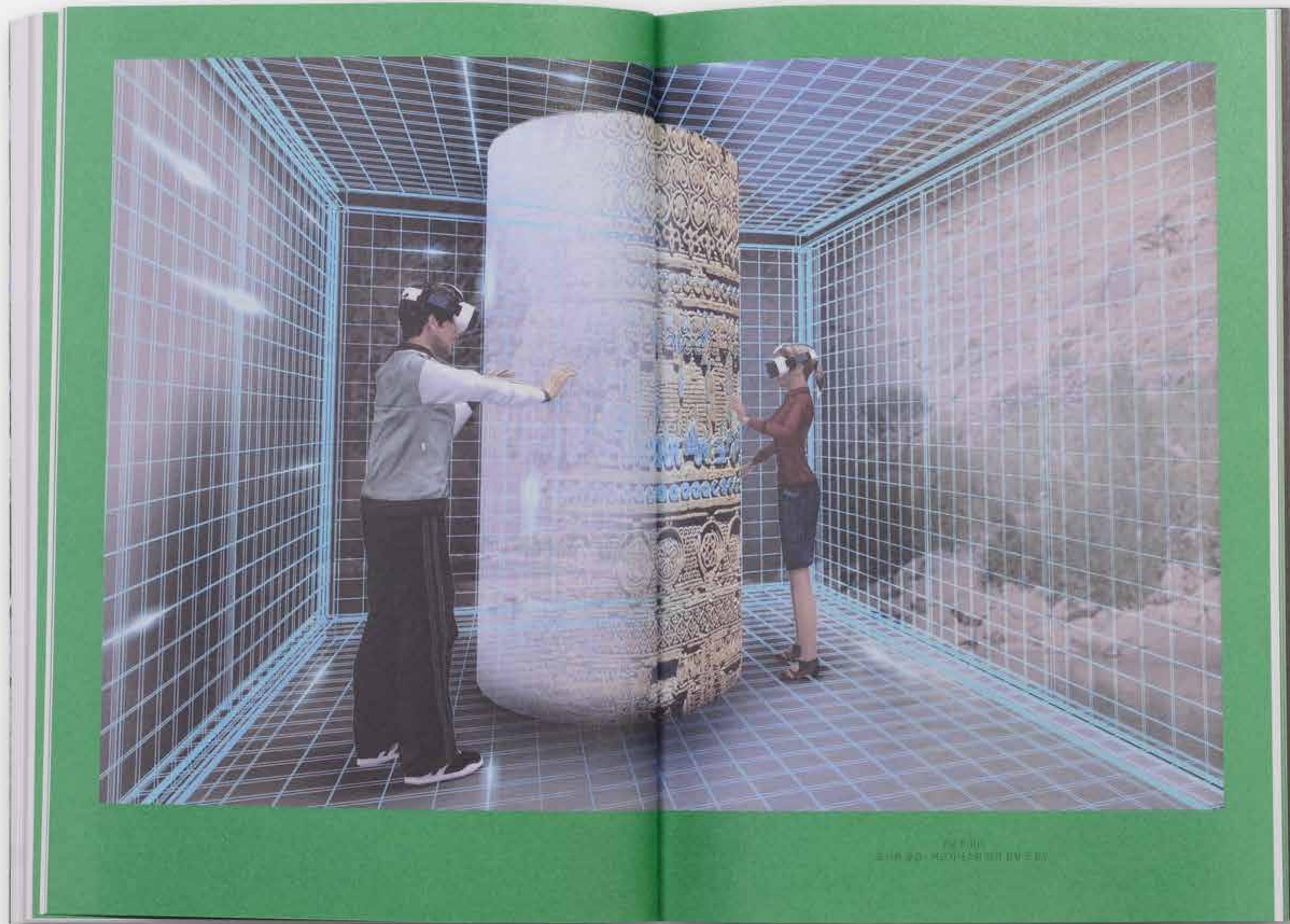
인터아시아버스Inter-Asia-Verse는 유니버스Universe라는 하나의 단일하고 추상적인 인식 모델로서의 통합된 우주라는 개념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와 세계 간을 넘나들고 개입하여, 구체적으로는 아시아와 아시아의 각 나라들 사이를 연결짓고 상상하는 체험을 통해, 그들 간의 교류와 소통으로 축적시켜온 간·아시아적 문화유산을 재발굴하고 아시아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롭게 탐색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인터아시아버스는 이러한 주제를 '미래의 가상 박물관'이라는 형식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아시아 각자에 흡어져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3D 이미지로 스캔한 뒤 역사적, 신학적, 정치적, 도시적인 기준 등의 강소적 분류에 따라 재구성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창조원 1092관의 방Cell들에 가상현실의 형태로 재배치Mapping한다.

관람자는 HMD Head Mounted Display를 착용하고 가상박물관을 거닐며 신화나 역사적 사실 등에 근거해 구성된 스토리에 따라 아시아 곳곳의 유적지를 방사하게 된다. 이러한 관람형태가 기존의 웹기반 가상투어Web-based Virtual Tour와 대비되는 지점은, 관람자가 실제로 전시장의 물리적 공간을 걸으며 가상의 유물과 공간을 생생하게 바라본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손에 쥐는 컨트롤러를 통해 직접 손으로 가상현실 속 유물들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람자는 자신의 육체를 인터페이스로 하여 드라마틱하게 부대화된 가상현실 속에서 아시아의 문화유산을 새로운 관점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06

가상 박물관 터입 프로젝이스

2016년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국립아시아전당 복합5관에서 가상 박물관의 기술적 체험사랑을 청점하고 시연하는 믹스드 리얼리티 텔(Mixed-Reality Lab)의 쇼케이스가 이루어졌다.

쇼케이스의 목적은, 가상현실에서의 촉각적 공간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관람자는 가상의 미술작품과 문학유산이 배치된 공간을 자유롭게 거닐며 자신이 본 객체를 있는 그대로의 형태로, 바로 그 위치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된다. 가상의 스튜디오에 설치된 전시품은 진품의 모양과 크기를 똑같이 옮겨놓은 애자틀과 앙코르아트에 있는 문학유산, 그리고 관람자의 선핵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조각 작품들이었고, 관람자가 HMD를 끼면 그 사람들 위로 가상 객체의 이미지가 정착되었다.

이번 쇼케이스의 의미는, 시각적 경험과 동시에 문학유산의 촉각적 경험을 함께 제공하는 '가상현실 공간 체험 기술'을 구현하고, 그 기술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관람자의 몰입 및 자유로운 움직임을 방해하는 장비의 채이불, 비체험 상황

의 관람객을 고려한 간접체험 방법 모색(크로미기 기법으로 협성된 이미지를 관람자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으로 각각 모니터링) 등, '문화상품화'를 위한 요구 기능 분석을 통해 좀 더 향상된 관람경험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 이었다. 이로써 아시아 문학유산 데이터를 가상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한 기술적 체계를 점검하고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10

11

12

1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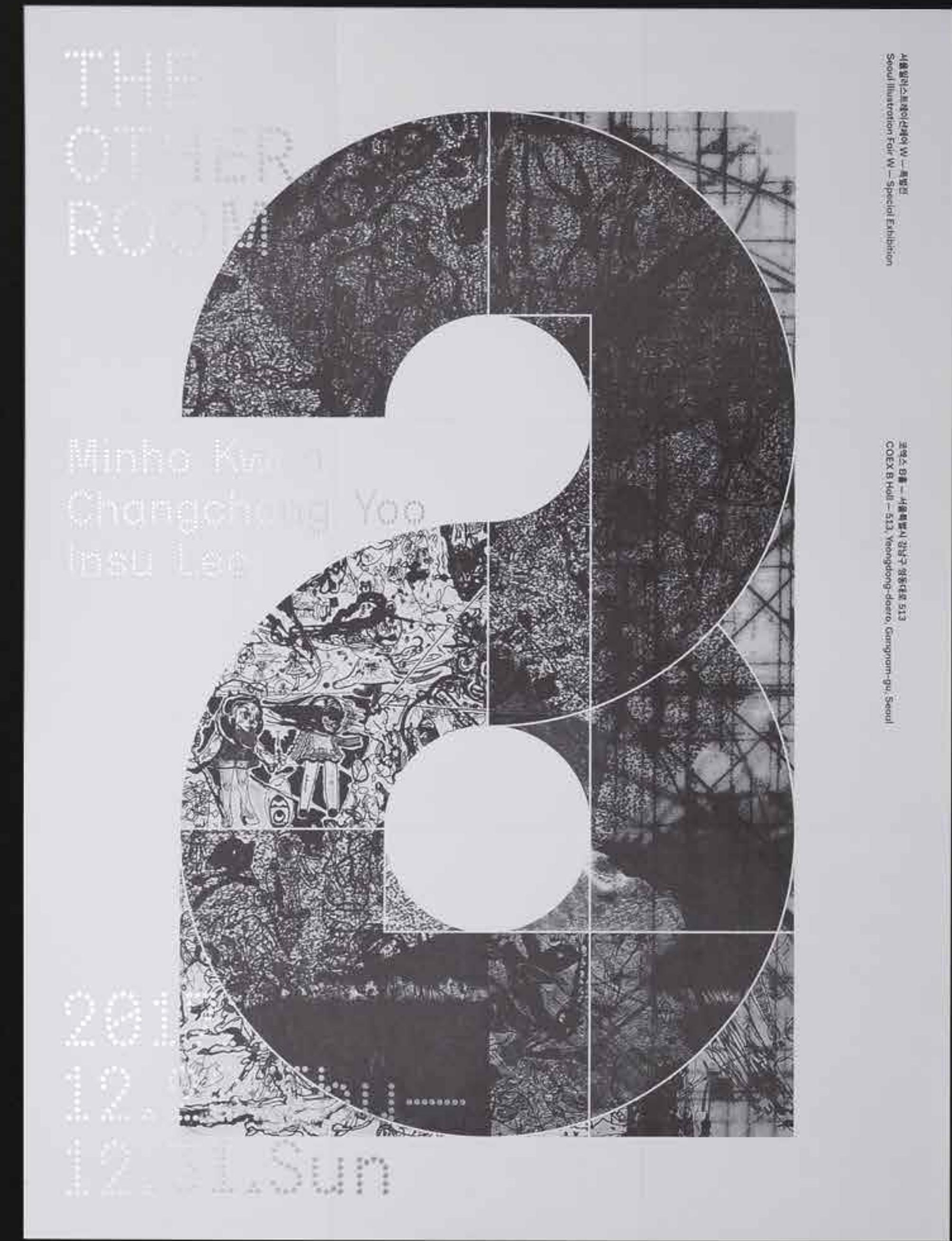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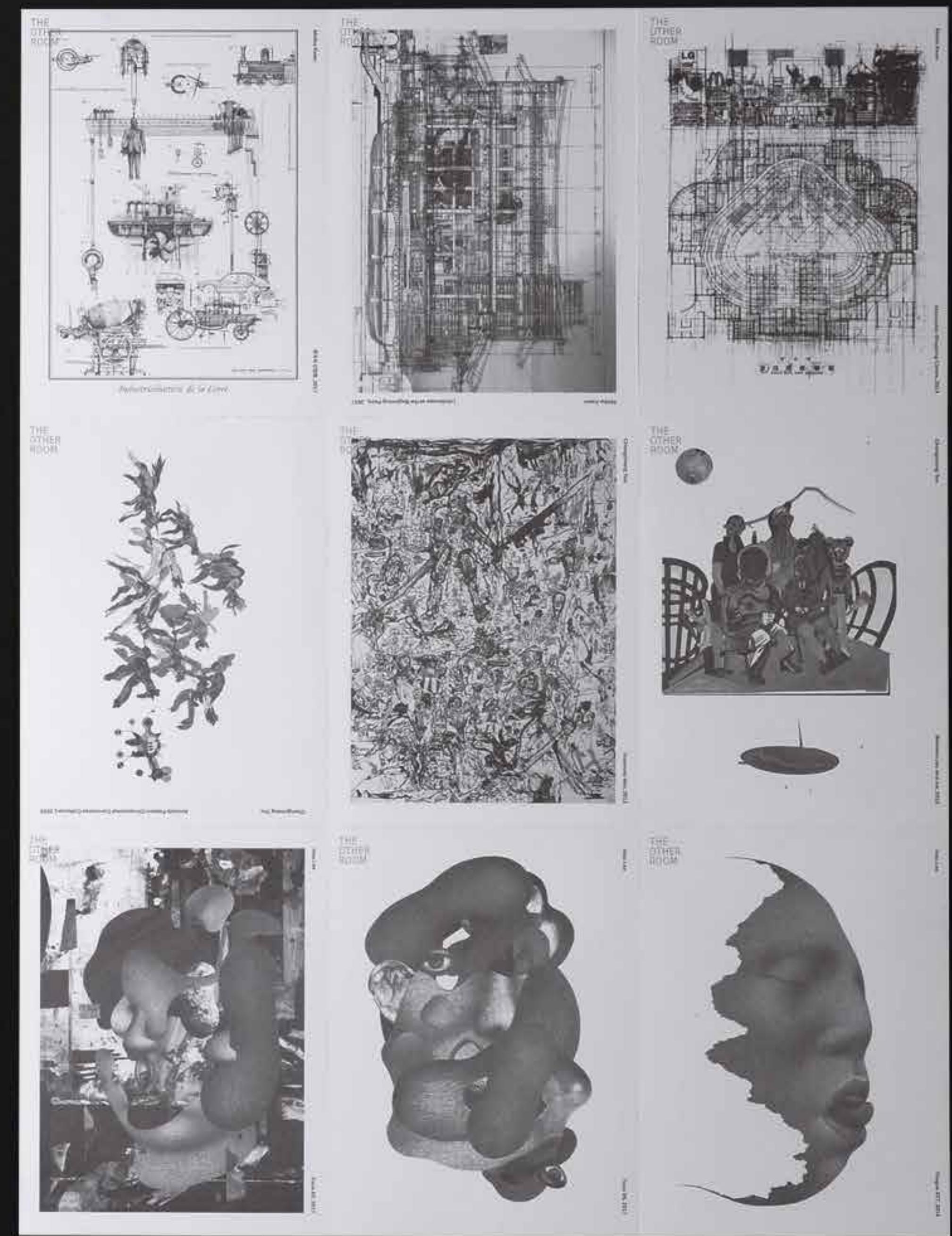


The Other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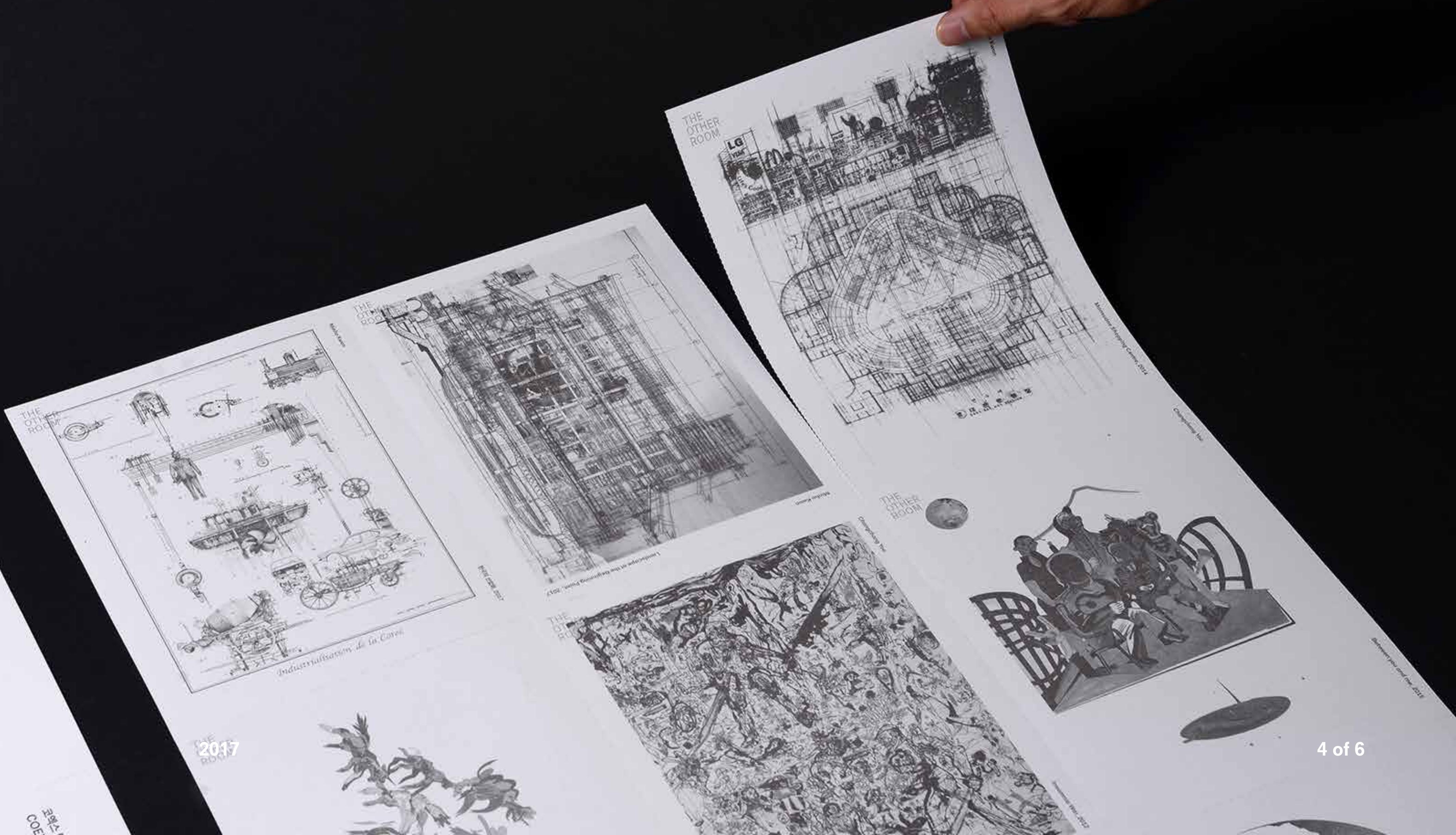
2017

2017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에서 열린
3명의 일러스트레이터 [이인수, 권민호, 유창창
작가]의 특별 초대 전시 The Other Room
그래픽 디자인 및 포스터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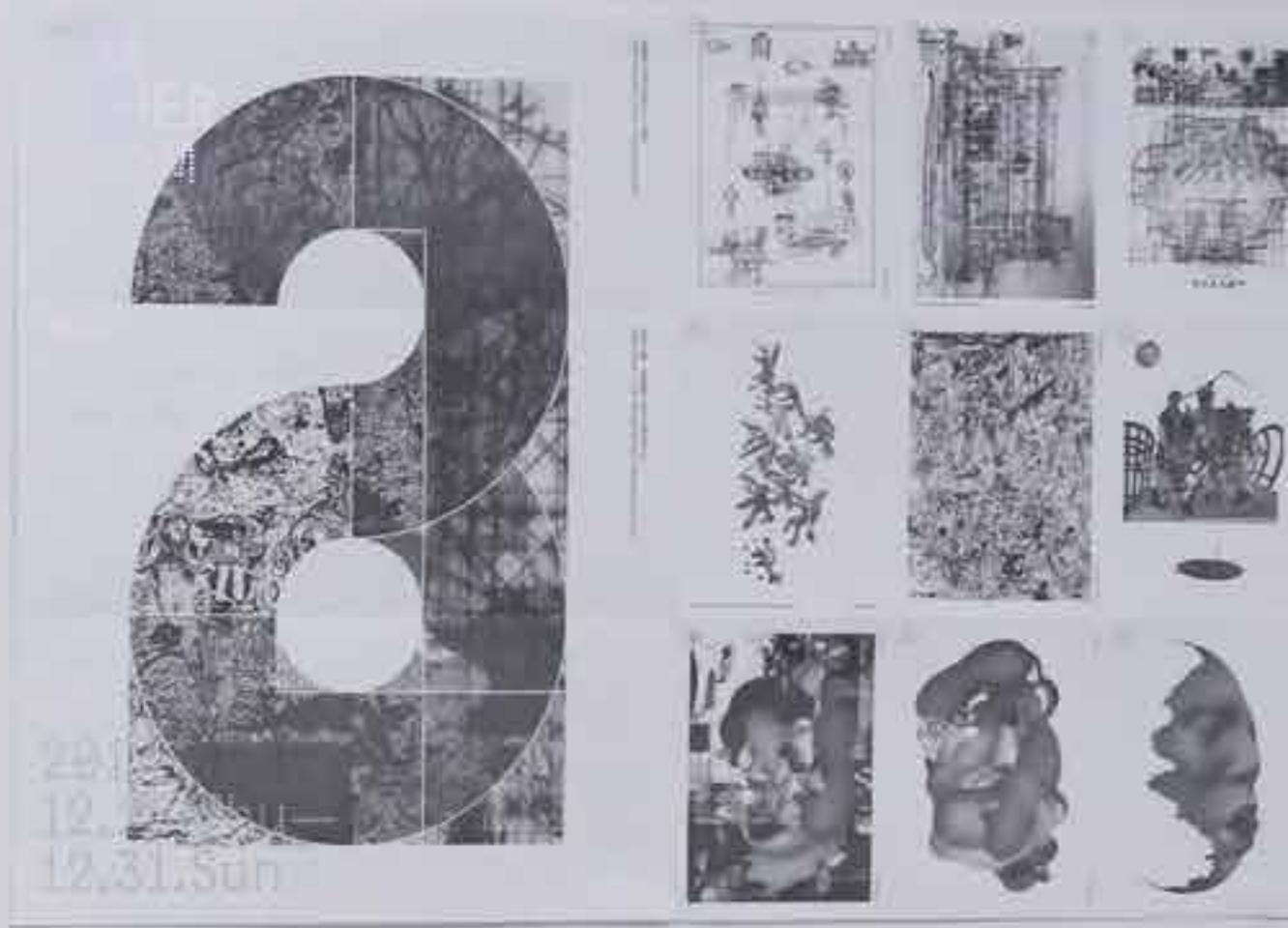


The Other Room

2017

THE OTHER ROOM

The Other Room 전시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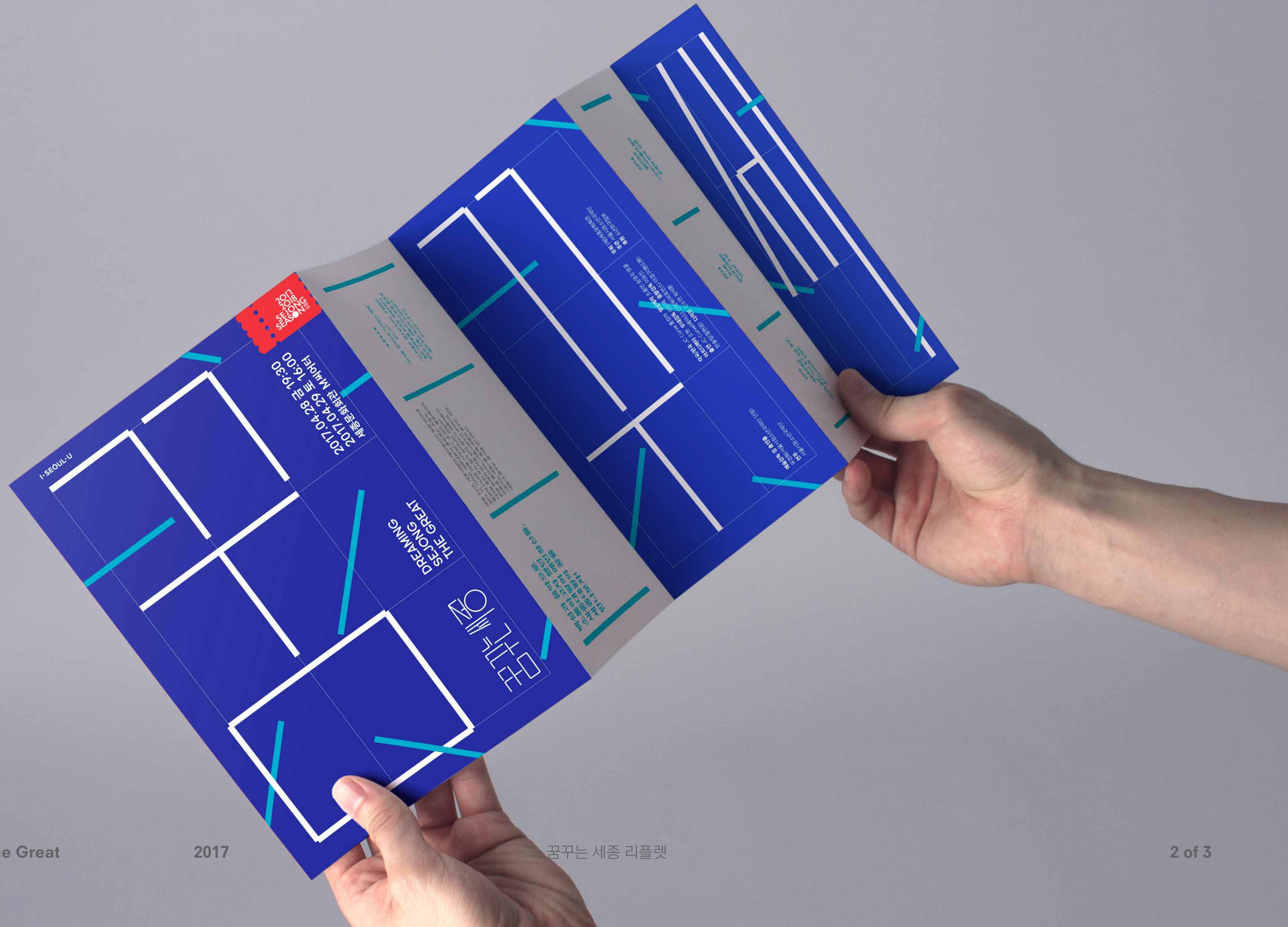
6 of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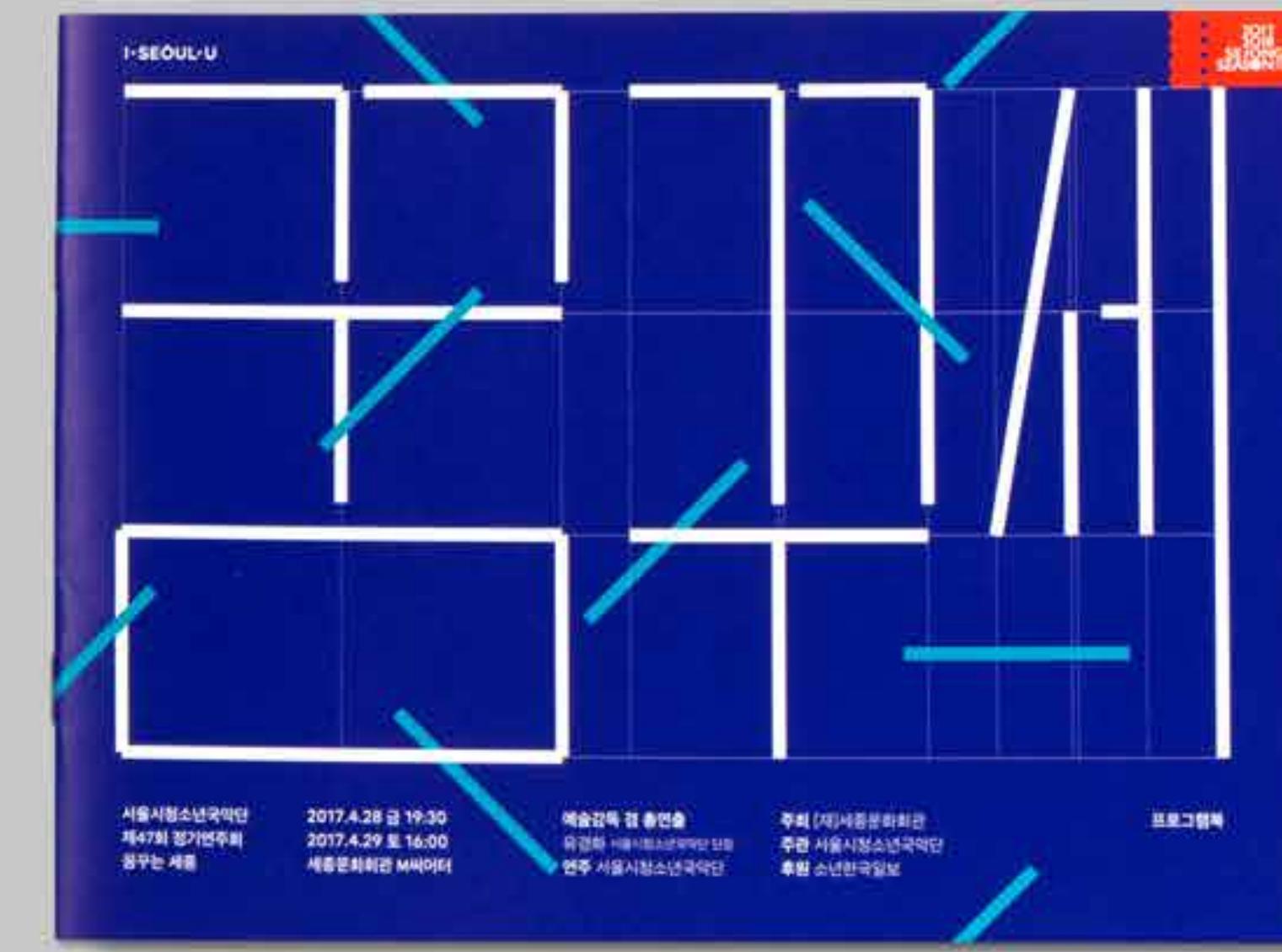
Dreaming Sejong The Great

2017

서울시청소년국악단 국악콘서트
[꿈꾸는 세종] 포스터 및 홍보물 디자인







Dreaming Sejong The G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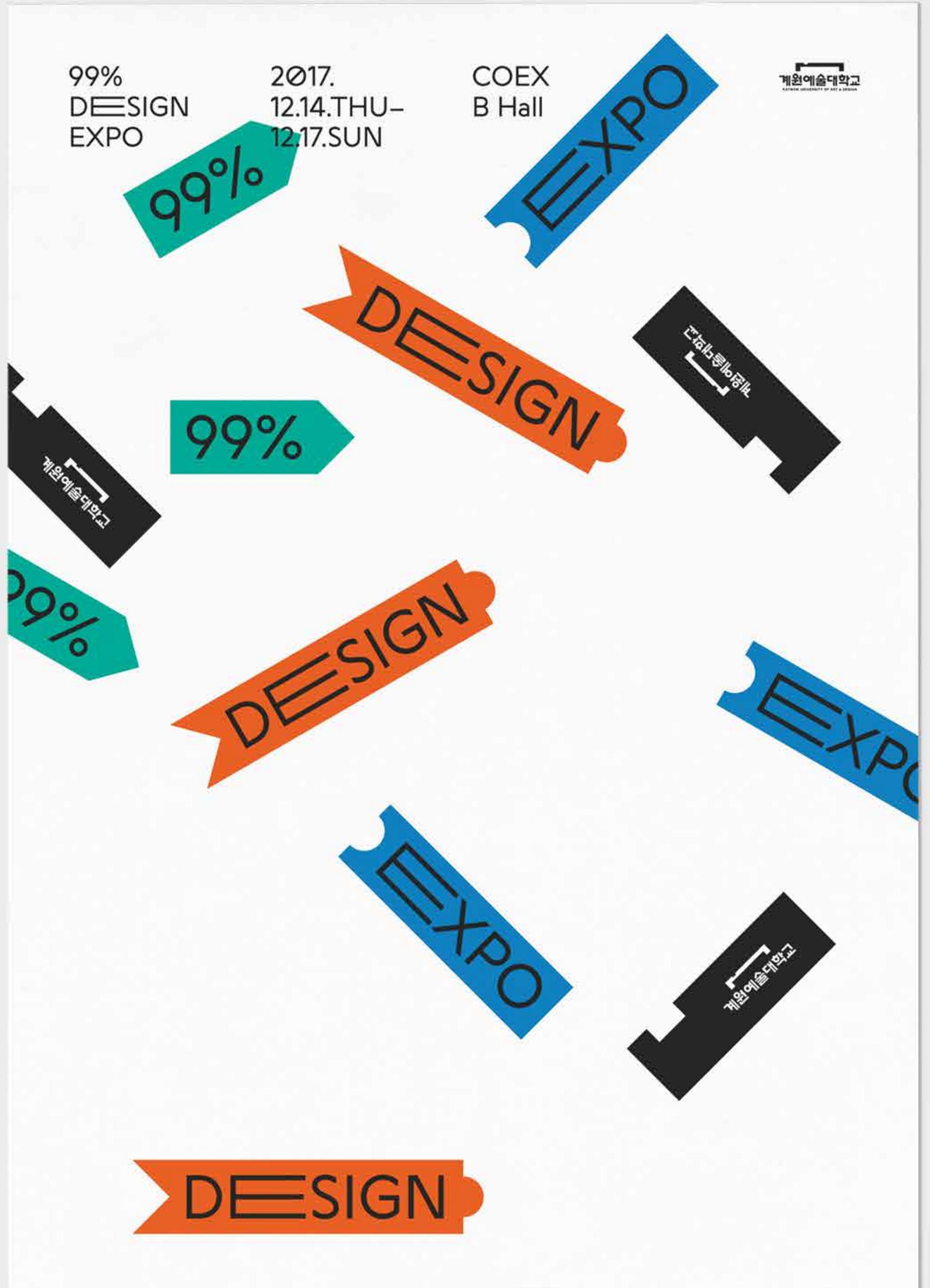
2017

꿈꾸는 세종 리플렛, 프로그램 놀

99% Design Expo

2017

계원예술대학교 주최 주관의 예술박람회
99% Design Expo 아이덴티티 및
홍보물 디자인



99% Design Expo

2017



99% Design Expo 메인 포스터

1 of 6





99% DESIGN EXPO

99%디자인엑스포는 국내 최초로 대학이 주최하는 예술·디자인 박람회입니다.

99%디자인은 사용자에 의해(by the people) 완성되는 디자인을 뜻하며, 소수만 누리는 디자인이 아닌 모두를 위한(for the people) 디자인을 지향합니다.

99%디자인엑스포는 5만 관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이 이뤄지며, 계원프렌즈와 계원인이 산학일체를 이루어 창조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제원인들의 진보적인 예술·디자인 축제, 99%디자인엑스포의 전시·이벤트는 GREEN, PLAY, SMART로 구성되며, 계원 프렌즈관, 학생전, 교수전, 동문작가전, 디자인샵, 공방, 잡페어, 디자인뉴스, 계원옥션 그리고 실용음악과의 출범을 예고하는 특별공연이 준비됩니다.

현실에 마물기보다 캠퍼스 밖으로 나와 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대중과 교류하려는 계원의 행보에 많은 참여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PO MAP

주제

- GREEN
- PLAY
- SMART

| | | | | | | | | |
|-----|-----|-----|-----|-----|-----|---|-----|----|
| 809 | 808 | 807 | 806 | 805 | 804 | 8 | | 10 |
| 810 | 811 | 812 | 813 | 803 | 801 | | | |
| 817 | 816 | 815 | 814 | 802 | | | | |
| 909 | | | | 2 | | | 907 | |
| 910 | | | | | | | 906 | |
| 911 | | | | | | | 905 | |
| 13 | | | | 5 | | | 904 | |
| 12 | | | | 1 | | | 903 | |
| 11 | | | 3 | 4 | | | 902 | |
| 7 | | | | | 6 | | 901 | |
| 6 | | | | | | | | |

1. EVENT HALL
2. GREEN ZONE
3. PLAY ZONE
4. SMART ZONE
5. KAYWON DESIGN SHOP
6. KAYWON FACULTY
7. KAYWON ALUMNI
8. KAYWON STUDENTS
9. KAYWON FRIENDS
10. KAYWON JOB FAIR
11. Cafe PLAY
12. DESIGN NEWS
13. INFORMATION

KAYWON STUD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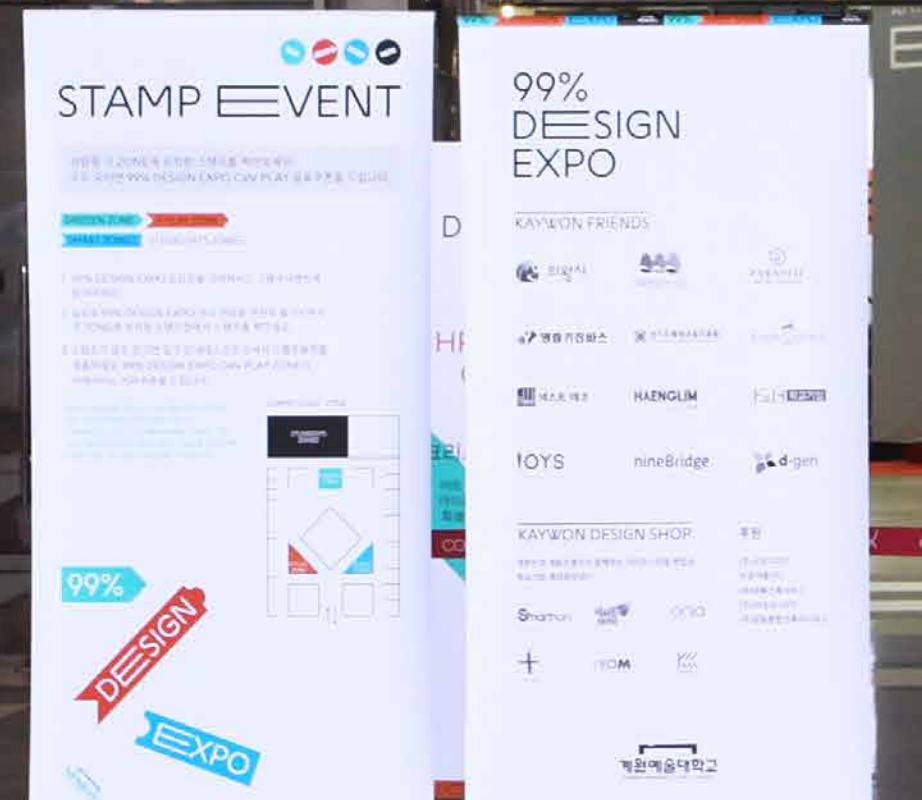
| | | | |
|-----|------------------|-----|------------------|
| 812 | 전시디자인과 | 906 | (주)파라다이스 / |
| 813 | 공간연출과 | 907 | 재단법인 파라다이스 복지재단 |
| 814 | 화훼디자인과 | 908 | 학교기업 |
| 815 | 융합예술과 | 909 | 행림종합건축사무소(주) |
| 816 | 광고 브랜드디자인과 | 910 | (주)이오이스 |
| 817 | 소수미술과 | 911 | (주)나인브릿지 |
| | 사진예술과 | 912 | (주)디센 |
| | KAYWON FRIENDS | | DEC 디자인 엑스포트 클럽 |
| 801 | 신진디자이너 양성 프로그램 / | 901 | 네스트 데코 |
| | 창업동아리 경진대회 상과전시 | 902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 802 | 광고 브랜드디자인과 | 903 | 파버카스텔 |
| 803 | 시각디자인과 | 904 | 의왕시 / 의왕백운PFV(주) |
| 804 | 디자일미디어디자인과 | 905 | 양립키친버스 |
| 805 | 게임미디어과 | | |
| 806 | 영상디자인과 | | |
| 807 | 애니메이션과 | | |
| 808 | 산업디자인과 | | |
| 809 | 리빙디자인과 | | |
| 810 | 건축디자인과 | | |
| 811 | 설내건축디자인과 | | |

Hall B2

99% DESIGN EXPO

2017.12.14.THU
—12.17.SUN
COEX 1층 B Hall

계원예술대학교
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99% Design Expo

2017

99% Design Expo 입구

4 of 6



99% Design Expo

2017

99% Design Expo 배너

5 of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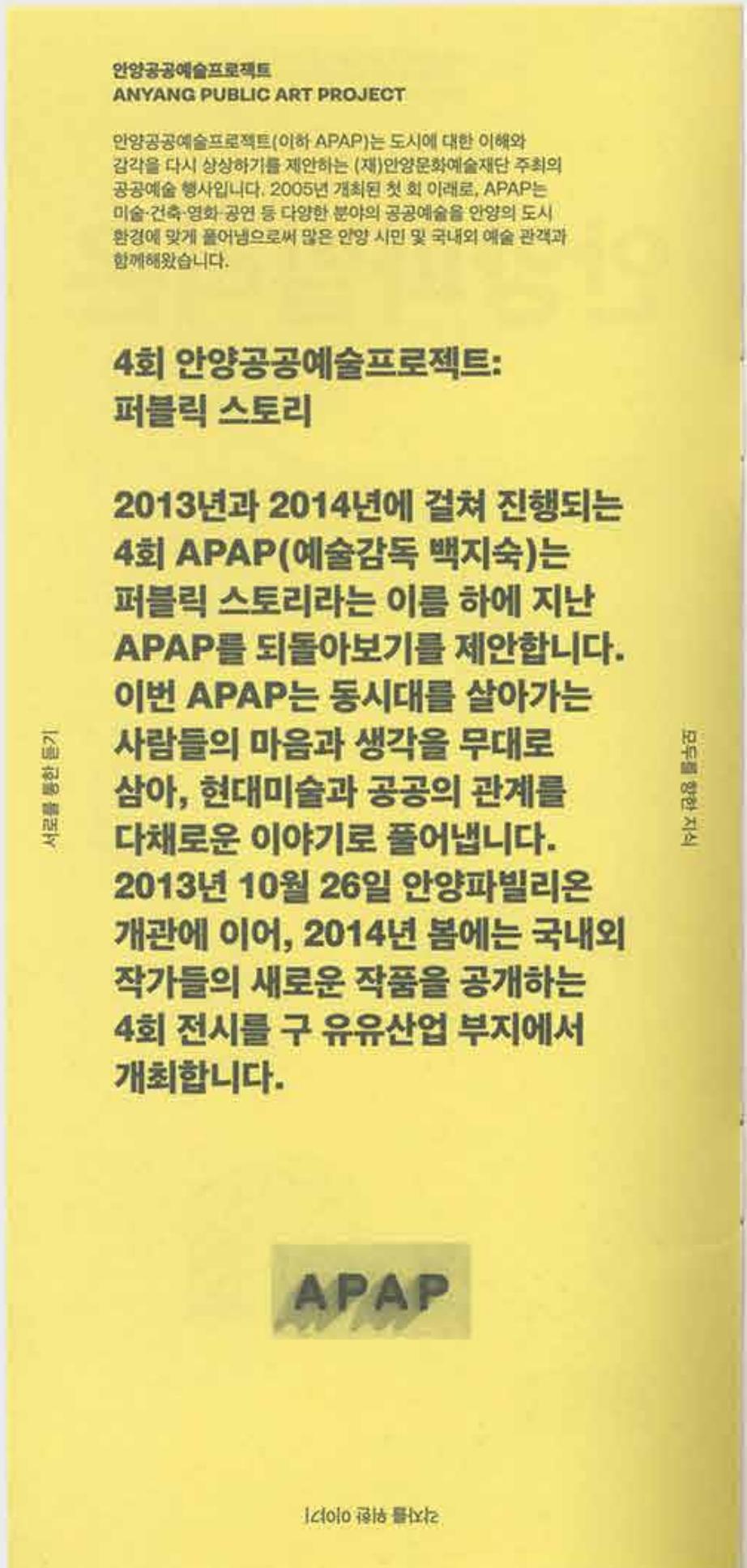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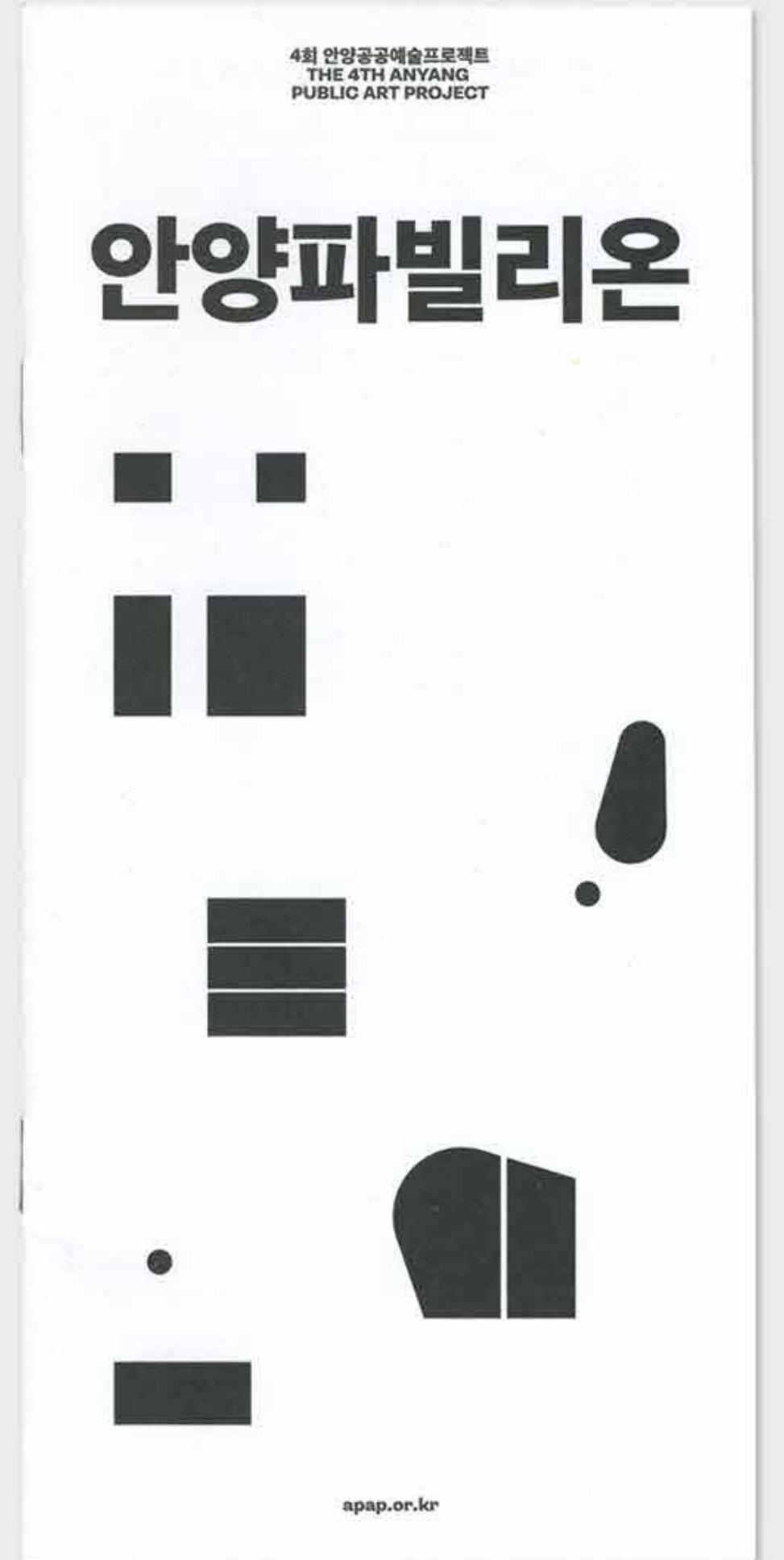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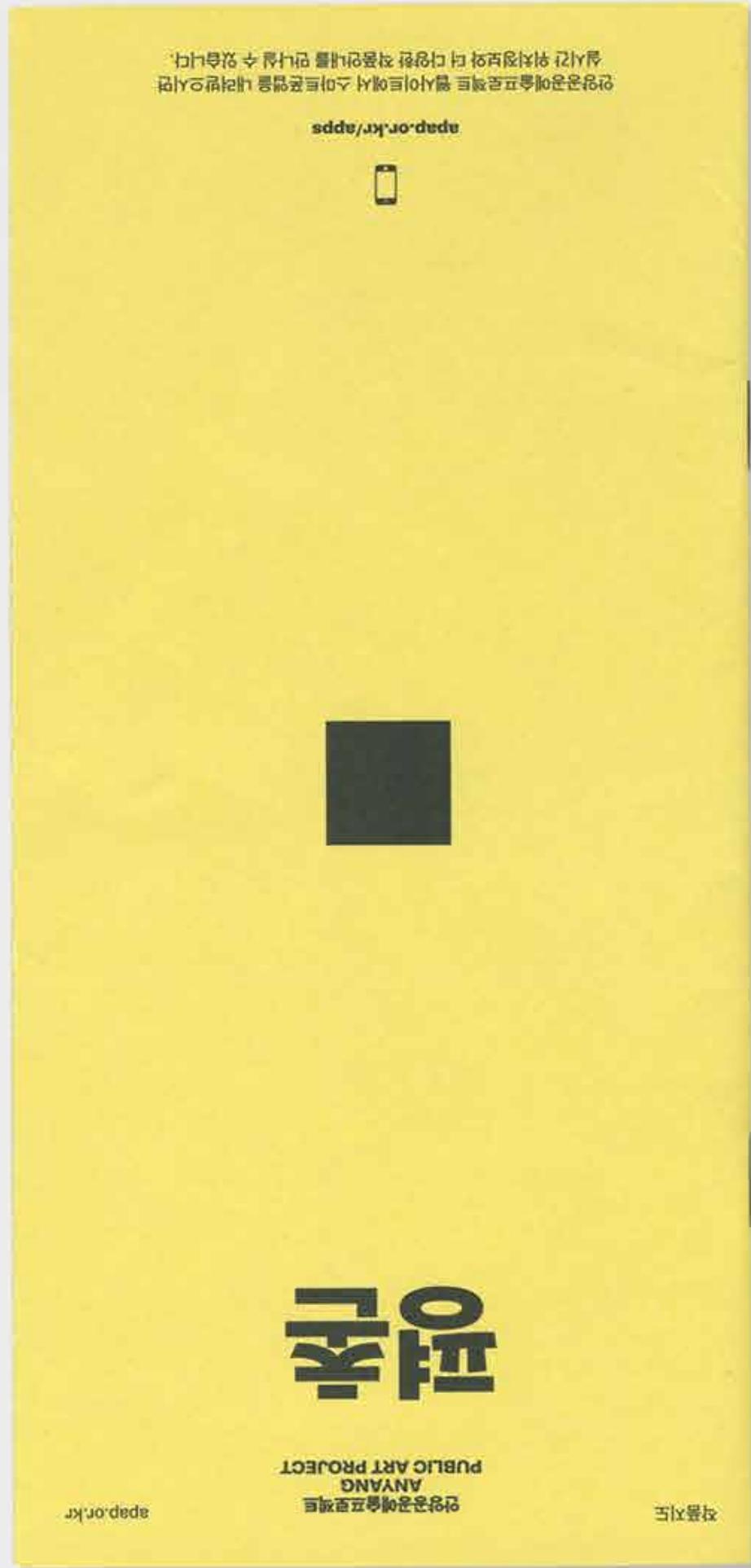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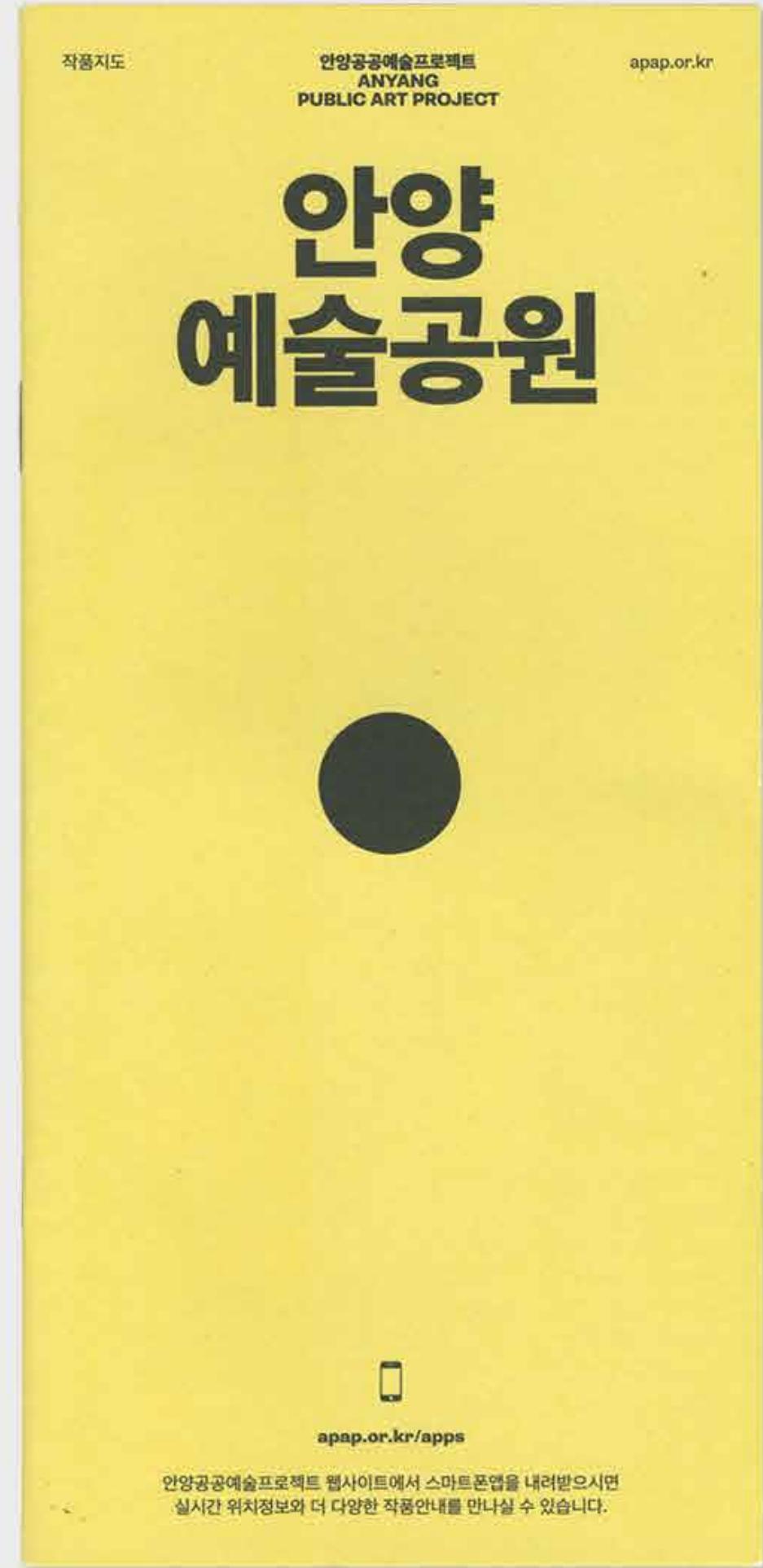
Anyang Public Art Project (AP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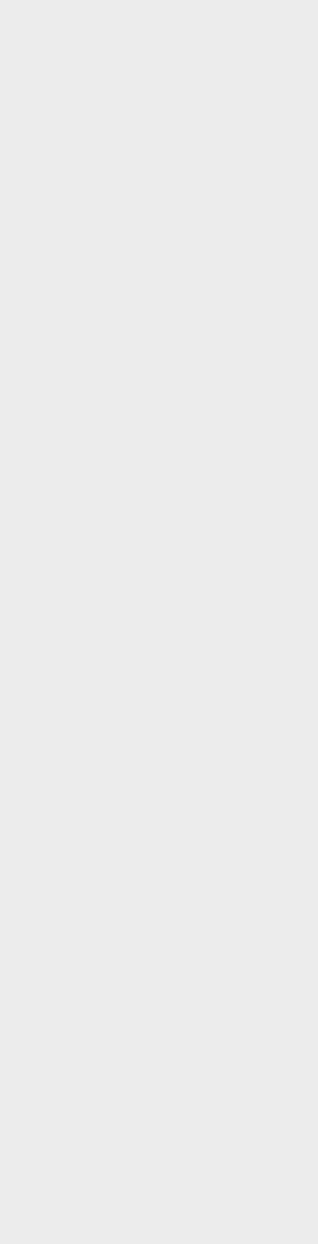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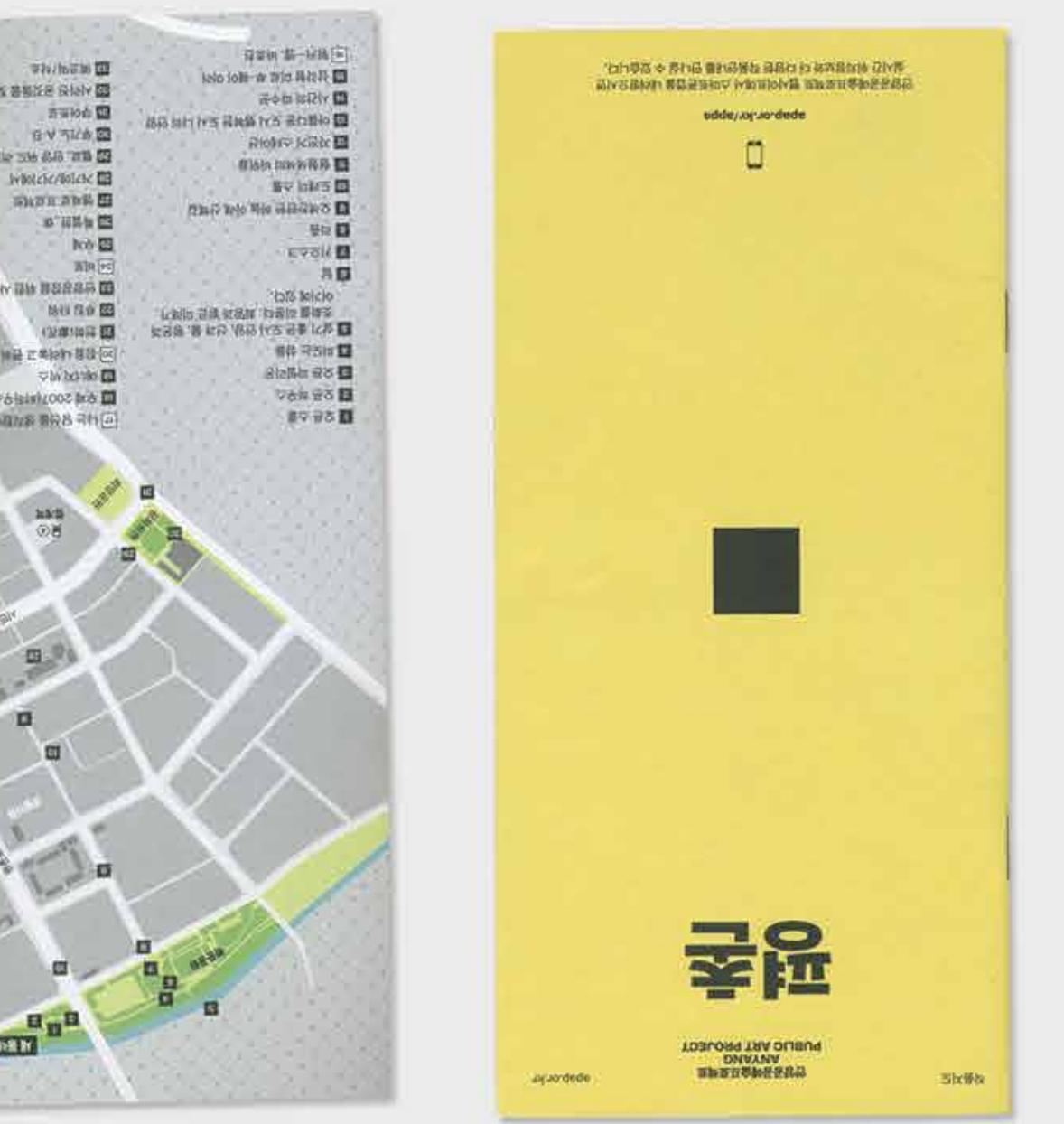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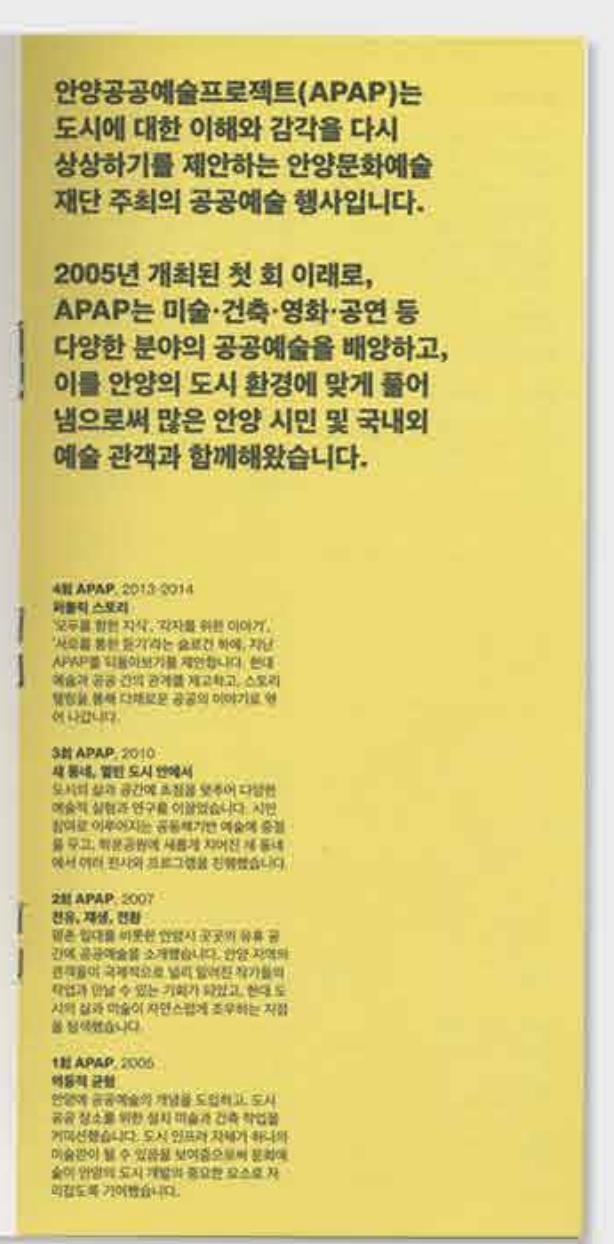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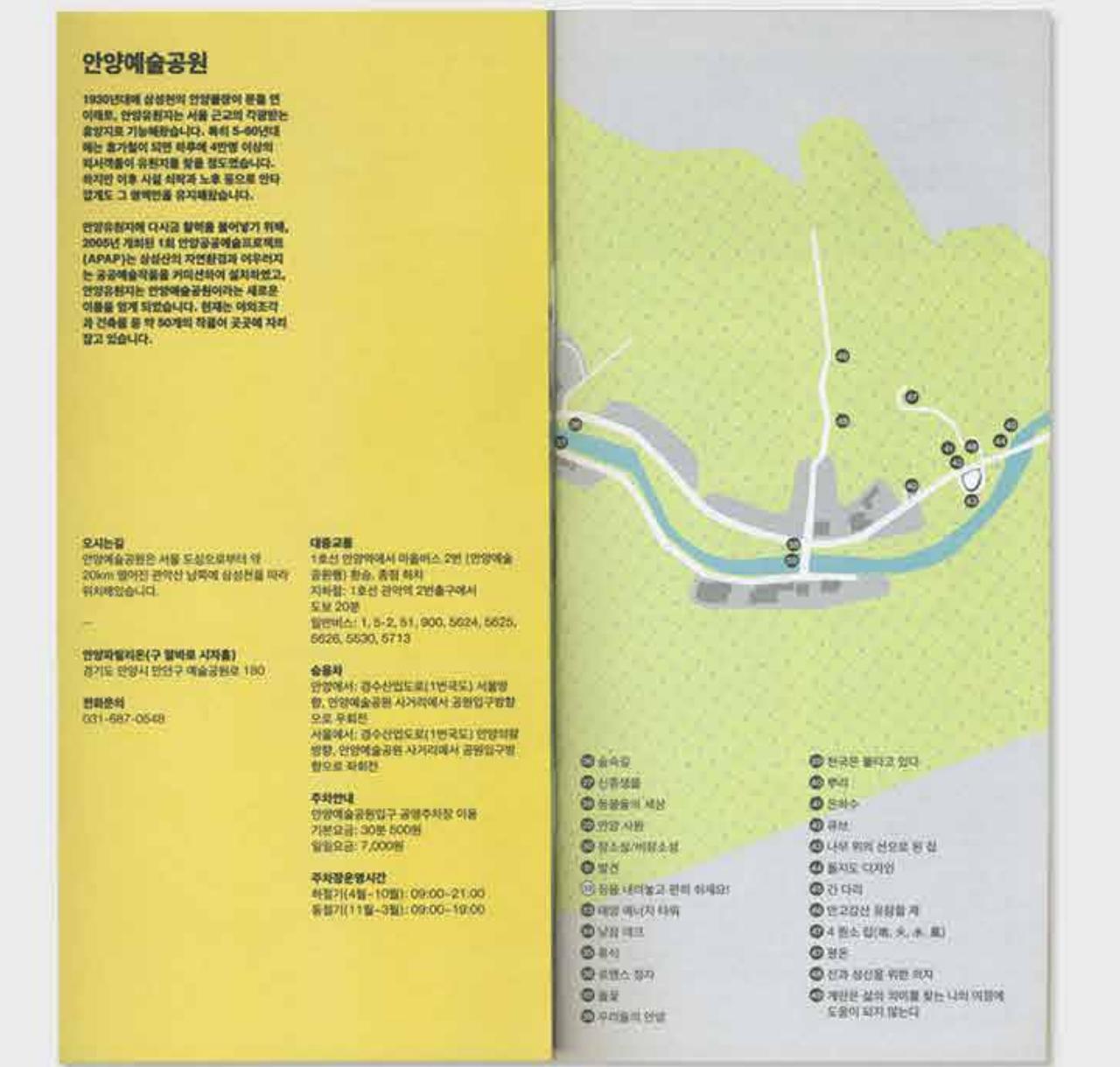
2014

안양시에서 열리는 국제 규모의 공공예술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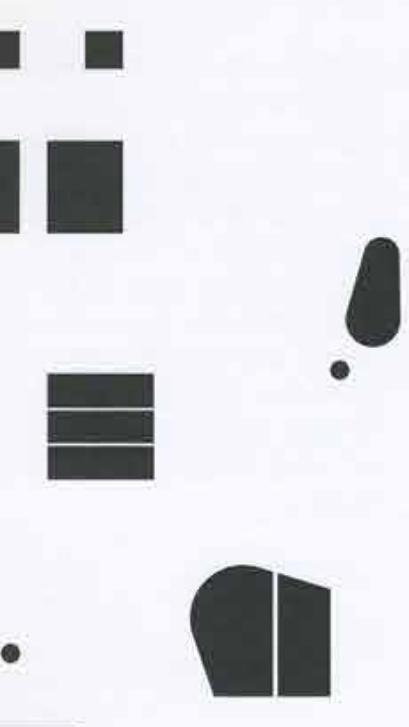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PAP의 제4회 초기

브랜딩 프로젝트 및 책자 디자인 참여





안양파빌리온



apap.or.kr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ANYANG PUBLIC ART PROJECT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APAP는 도시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다시 살피우기 위해 하는 「제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주제의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2005년 개최된 첫 번째 APAP는
누구나 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공연예술을 만날 수 있는
한국의 모임 플랫폼으로서 많은 인연 사건 및 미디어 축제를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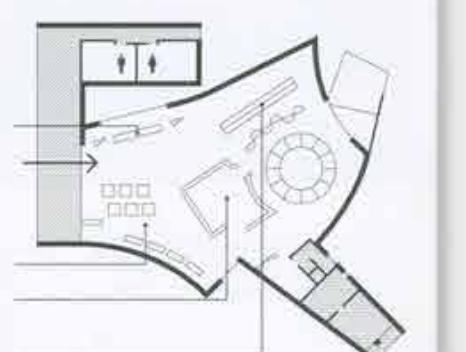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퍼블릭 스토리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진행되는
4회 APAP(예술감독 백지숙)는
퍼블릭 스토리는 이를 하에 지난
APAP를 되돌아보기로 제안합니다.
이번 APAP는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무대로
상이, 현대미술과 공공의 관계를
다채로운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2013년 10월 26일 안양파빌리온
개관에 이어, 2014년 봄에는 국내외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공개하는
4회 전시를 구 유유산업 부지에서
개최합니다.



lctojo@naver.com

안양파빌리온은 4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예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APAP의 새로운 허브입니다.



여행내내
수요일: 오후 10시~오후 6시
목요일: 오후 10시~오후 9시
금요일: 오후 10시~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0시~오후 6시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안양역에서 마을버스 2번
(안양시승강장) 환승, 풍정역에서
단행버스로입니다.
별도 접두어가 없습니다.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 꿈과 흔적을
만들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奥斯는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동 180
(안양 1391)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안양역에서 마을버스 2번
(안양시승강장) 환승, 풍정역에서
단행버스로입니다.
별도 접두어가 없습니다.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위해 꿈과 흔적을
만들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간 상당수 예술 활동이 가능한
인시나리오 305 아름다운 단체 관람객은 사전
등록 부탁 드립니다.



안양파빌리온 구 알바로시자주

건축

안양파빌리온은 20세기 모던 건축의 마지막
기장으로 꼽히는 일바루 시자 비에이라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설계한 건물입니다. 1회 APAP의 작품
중 하나로서, 당시 새롭게 조성된 안양예술공원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바라보는 위치마다 외부 경관과 내부 공간을
다르게 재현하는 독특한 비정형의 공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파빌리온은 저마다 외부 풍경과 내부 공간을
거울형의 건축물을, 또는 공연예술 전시를 위
해 지어진 거울형의 건축물을, 또는 공연예술 전시를 위
해 지어진 거울형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4회 APAP 열리는
공간을 지향하는 건축의 속성을 살펴, 방문객들이
건축물을 자유롭게 경험하고, 공연예술을 보다
밀접하게 만나는 공간으로 안양파빌리온을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그 외 힘껏 건축물의 의도의 특성을
살펴, 2006년부터 산다는 이름인 「알바로시자주」
대신 「안양파빌리온」이라는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참여작가: 노노례, 인혜정, 문희숙(이경수), 홍충주
후보전시원회: 김경희, 박경
운영사무원회: 김종상, 김규임, 김호진
기술지원: 이미경, <기밀역> (기밀역에 예로드, 2012)

공원도서관: 책과 상자

Park Library: Books
and Boxes

공원도서관은 시민 연구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공공예술 전문 도서관입니다.
2000년 젊은 도서 외에도 각종 시민 프로그램과 도서
제작 등 예술을 다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입니다.
공연예술에 대해 알고, 함께 이야기하고,
나아가 공연예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도서관을 경험해보세요.

apap.or.kr/parklibrary
parklib@apap.or.kr



프로젝트 아카이브

2005년부터 현재까지, APAP는 150명이 넘는
작가들과 함께 140여점에 달하는 공공예술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아카이브는 지난
APAP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세세적으로
정리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스케치나
도면, 현장 사진, 신문 소크류 등을 보유하는 연구
공간입니다. 이제는 찾아볼 수 있는 파포인스와
워크숍 등 무형의 작품들도 자료들로 다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아카이브 템세도구
템세도구는 원하는 작품과 관련 아카이브 소장
자료를 찾기 위한 연구자용 갤러리를 제공합니다.
아카이브 상자별로 정리된 자료 목록과 내용을
APAP 웹사이트와 도서검색대에서 찾아보세요.

— 무의미

공원도서관에서는 매주 소장 장서 중 1권씩
추천도서를 선정하고, 책의 내용을 풀어서
소개합니다. 초청된 전 전 프로그램과 공간화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다루고, 예술가와 시민과 함께
작가의 의견을 고려해 수합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종 선정된 건축가 신혜원의 구성안 통합을 주된
모티브로하여, 기존의 모순들을 통합하면서도
각각의 명상의 특성과 성능성을 모두 끌어 올려
공연장을 재현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명상의 특성과 성능성을 모두 끌어 올려
공연장을 재현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명상의 특성과 성능성을 모두 끌어 올려
공연장을 재현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명상의 특성과 성능성을 모두 끌어 올려
공연장을 재현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명상의 특성과 성능성을 모두 끌어 올려
공연장을 재현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명상의 특성과 성능성을 모두 끌어 올려
공연장을 재현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명상의 특성과 성능성을 모두 끌어 올려
공연장을 재현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각각의 명상의 특성과 성능성을 모두 끌어 올려
공연장을 재현하는 특별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 누구나연구자 프로그램

전시작가와 비전원회는 구분을 냐며, 모든
사람이 공연예술의 연구자입니다. 아카이브의
자료와 대화하고, 서로와 대화하는 아카이브의
누구나연구자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자체한
일정은 APP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 APAP 디자인 아카이브

APAP 디자인 아카이브는 APAP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작품과 함께 APAP 웹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작가, 시간, 주제에 따라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해보세요.

— 도서 대출 서비스는 준비 중입니다.

만들자연구실 Making Lab

apap.or.kr/makinglab
makinglab@apap.or.kr

메이커(Maker) 문화는 공예, 전자회로, 3D프린팅
등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하여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고, 그 방법을 서로나누는 흐름입니다.
이러한 메이커 문화에 기반한 만들자연구실은 공간과
각종 연구 시설을 갖춘 시민들의 공공제작소입니다.
특히 안양시의 청소년과 성인의 참여와 창작적이고
자율적인 DIY활동을 진행하는 각종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만들자연구실 키트

하드웨어 기술의 원리와 용법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만들자연구실만의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전자부품과 컴퓨터 회로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용자를 위한 오른 소스 키트가
만들자연구실 워크숍에서 직접 활용됩니다.

워크숍

만들자연구실에서는 아두이노(Arduino),
드로질, 전자 회로 등을 활용한 시민창작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운영합니다. 워크숍 일정 확인과 참여
신청은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만들자 키트 [11/2-11/3]:
안양파빌리온에 함께 모여 시민들에게서 벌린
여러 도구를 변형하고 개조하는 1백2일의 만들자
키트

— 만들자 키트 [11/2-11/3]:
안양파빌리온에 함께 모여 시민들에게서 벌린
여러 도구를 변형하고 개조하는 1백2일의 만들자
키트



전시 Exhibition

Exhibition

Living as Form (The Modern Version)

2013/10/26-2014/5/15

<회로의 시학 (12/12, 12/14):
회로와 프로그램의 언어를 이해하고, 예술적
창작물을 통하여 경험하는 워크숍

— 만들자 손난다 품마 (12/19):
손난다 안에 들어가는 작은 컴퓨팅이 아두이노
보드를 내 손으로 직접 제작하는 워크숍

— 만들자 만들자 연구실 (12/21):
우리 동네에 공공공간을 공간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워크숍

— 우리는 같은 표정을 하고 있다
Sharing Faces

2013/10/26-2014/5/15

— 예술을 찾는 가구와 공간 사이
Reading Art: Between Furniture and Space
SoA (Society of Architecture)

2013/10/26-2014/5/15

— 거울의 힘
Force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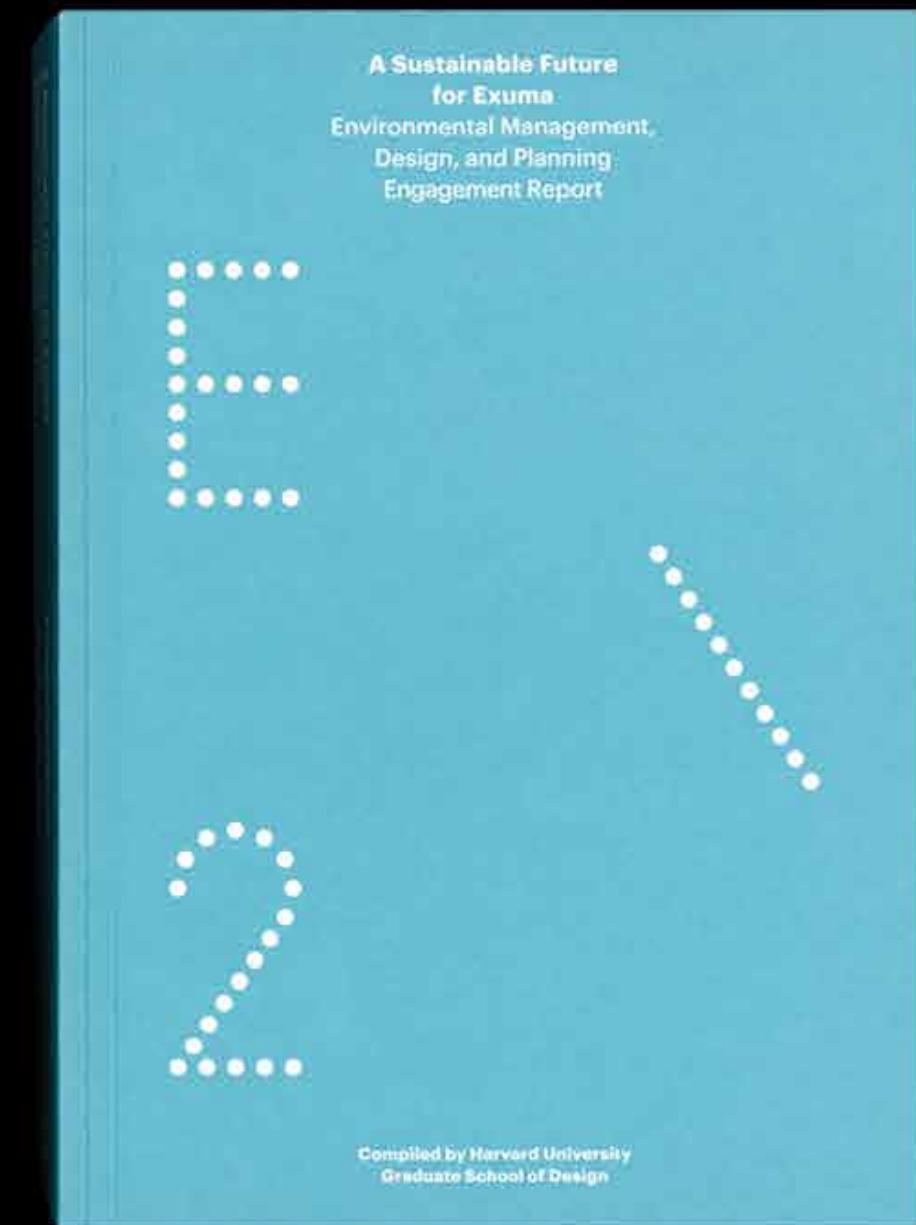
2013/10/26-2014/5/15

— 전시 전시
The 4th Anyang Public Art Project

A Sustainable Future for Exuma

2014

바하마 지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을 연구하는
Exuma 프로젝트의 두번째 연간 보고서 디자인
및 현지인들에게 나눠준 홍보물 디자인



AUGUST 19 — SEPTEMBER 15

ATLAS, PROTECTED AREAS AND VULNERABILITY

Abner Calixter

The overall goal of this trip was to collect enough information for the creation of an Atlas of the Exuma Archipelago. An exploratory study was conducted searching for data related to Exumian population, fauna, flora, geology, elevation and ownership. Due to the strong centralisation of information, the research took place mostly in Nassau, collaborating with governmental agencies, NGOs, specialists and educators. At the same time, efforts to understand and gather data regarding a few aspect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The Bahamas were also undertaken during the journey.

Besides gathering and compiling baseline information for 365 islands and cays, the importance of producing an Atlas about Exuma directly relates to the need of easy and quick access to information such as maps, geographic information, social and economics

statistics as well as fauna and flora. There is a hope that the Atlas would contribute to the local environmental management, with the consolidation of the island and cays' natural assets inventoried and embedded in a single format (book or electronic version).

Purposes-findings

The Bahamas is highly dependent on Nassau. Decisions and policies made here are extended to the whole country. Any extreme environmental event (such as the strike of a super storm) or major economical disarrangements would indeed be felt in every settlement within the national boundaries, including Exuma.

Based in The Bahamas 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 (BEST) Commission office, the first week was devoted to networking and reaching key people that could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about Exuma. The key point was to understand the appropriate procedure to have access to the data, in addition to learning how that data was surveyed or collected. Due to the country's geography, surveys in The Bahamas can be extremely costly. For this reason, another important point was to better understand the available level of accuracy.

The Bahamas has a national policy called "The Statistics Act," which prevent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from Bahamian citizens. The policy adopted by the government is to not disclose precise information, rather aggregating data from settlements with less than 20 households to the larger, closer one. According to the Statistics Department this procedure saves money and preserves the dwellers'

Fieldwork

239

Block, Komi Town Meeting School House
9th Mar 2013

**Young people go to Nassau.
There are no jobs here. So they have to go even if they want to stay.**

Obviously like everybody else, I'd like to thank the DPM for his support. Also, getting to this stage, we've had a lot of conversations with a number of other people from the government, including the Minister of the Environment, Kenrod Dorsett. I want to thank President Booz for your support and for allowing us to be here. I'd also like to thank Permanent Secretary, Collin Higgs and Permanent Secretary Camille Johnson, who couldn't be here. Thank you to Neil McKinney, And to Eric, who has been really an incredible advocate of this project. And I very much want to thank the former Minister of the Environment, Dr. Earl Deveaux, who championed this project from the beginning, for being here; and of course, Mrs. Deveaux; I'd also like to thank former Prime Minister Ingraham. The list is very long. Of course thank you to our speakers and moderator and the people at the GSD, Gareth Doherty and the team. Thank you to all of the people who have been working on this particular project. I really want to thank everybody. But then I'll spend my whole time just thanking people.

Jus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 context, this is a project that has been going on for a little while. This stage of it is really very recent. And again, it has been made possible with the incredible support of Countess Beatrice von der Schulenburg.

It's very important that we recognize your participation,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the participation of local experts, which is really the focus of the work here today, and of course,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experts ...

The project at this particular stage is a multi-year research project that involves multiple constituencies. It's very important, as Eric said, that we recognise your participation,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the participation of local experts, which is really the focus of the work here today, and of course, the participation of international experts who are some of the key components of the project. So it's actually everybody working together that will make this a success.

In terms of our role, we see our role, as Eric said, as both learning and hopefully contributing to the project and the conversation. A project that we see as having multiple moments of impact and multiple moments of realisation as opposed to a multi-year project that then has a conclusion at the end.

Public Forum

53

providing advice and services to the Water and Sewerage Corporation as well as the Government of The Bahamas on geology,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issue of resource management is an important one. It is typically discussed for economic purposes but now increasingly for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 sustainability as well, because of the interactions between water, land wastes and what it does to the basic resources of the country, particularly in a country like The Bahamas where the water is such a fragile and important component of development.

Dr. Cant has always worked with the Bahamian Government as a hydrologist mapping out and quantifying the water resources of the major Bahamian islands.

Let me just hand over the microphone. He has some slides; he's going to show. Thank you.

Richard Cant

Good morning all. I have a PowerPoint presentation and I've only got 10 minutes to talk so I'm going to be chipping along fairly fast. If anyone wants a copy of the PowerPoint I'll send it to you. If you give me an email address.

What are the early sources of water supply? I'll be talking about water resources first and then water supply. Natural sinkholes, karst features and ponds are obvious things where fresh water can be found. Based on the Land Resources Survey, we know that natural potholes were used at The Ferry, Mount Thompson, Gilbert Grant, and Steventon. Ponds and marsh areas with fresh water have been recorded in Forest, Ramsey, and Mount Thompson as well.

Another early source of water supply came from rainwater collection. The public/private rainwater collection facilities are very common in all of the cays.

Other early sources of water supply would include shallow dug wells, which are common features in all of the old communities.

What resources do we exploit? The Bahamian freshwater lenses are called a Ghyben-Herzberg lens, named after the people who described it first.

I've got a little sketch here showing you (sort of idealised) one of the long thin islands where the dunes on the ocean side tend not to be good aquifers. They are too porous.

The back side marine deposits usually have quite good lenses as a rule, but you can see there is fresh water floating on salt water with a little brackish mix in between. These have been described in the literature all over the place.

This is a horrible little sketch I've done. It's to show you where fresh water can occur on very small cays or islands with some Holocene sands.

Public Forum

63



A Sustainable Future for Exuma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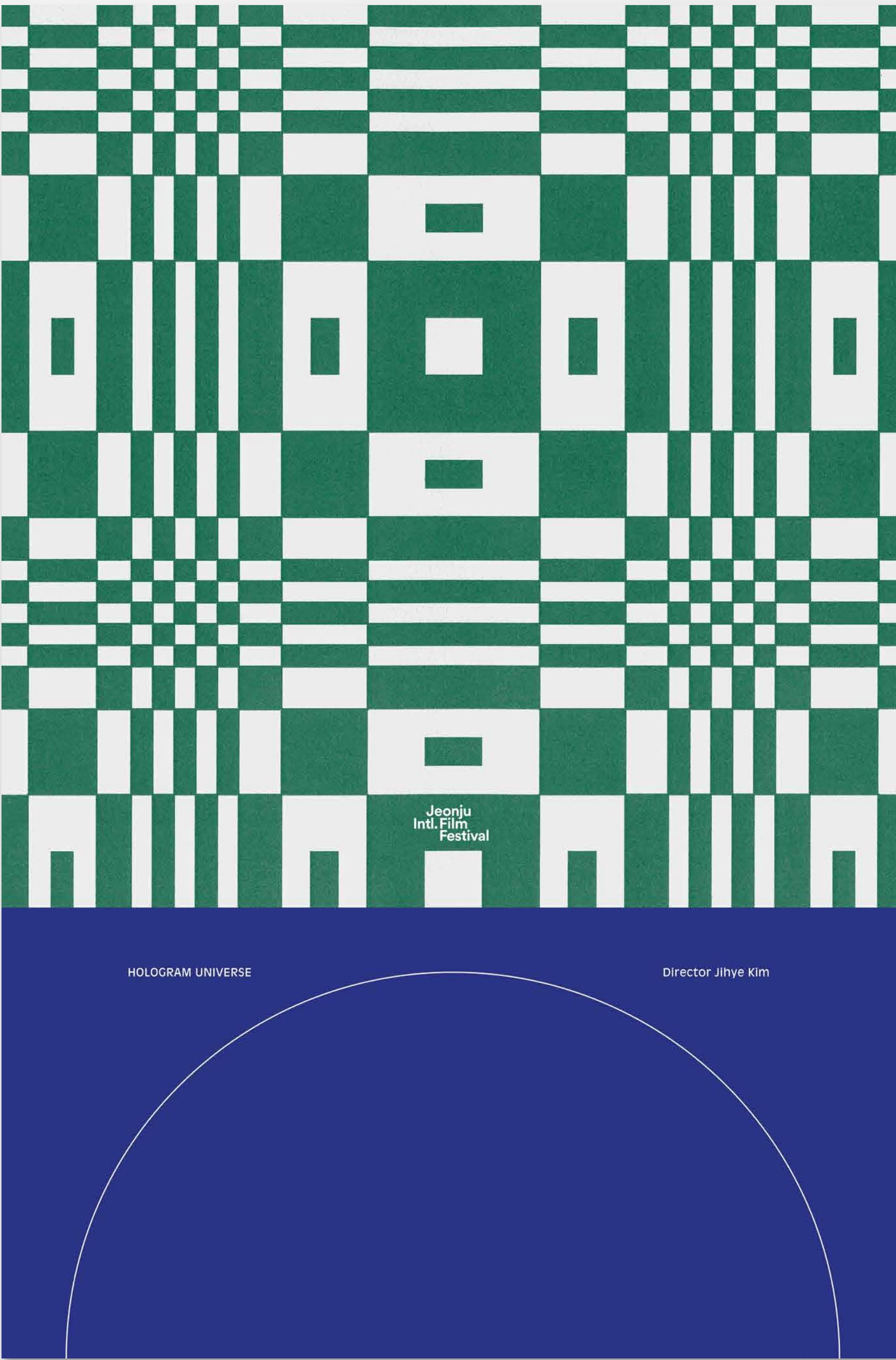
Exuma 아이덴티티를 응용한 티셔츠 및 에코백 디자인

2 of 2

Posters & Prints

2013 —

18, 19회 전주국제영화제
포스터 전시 참여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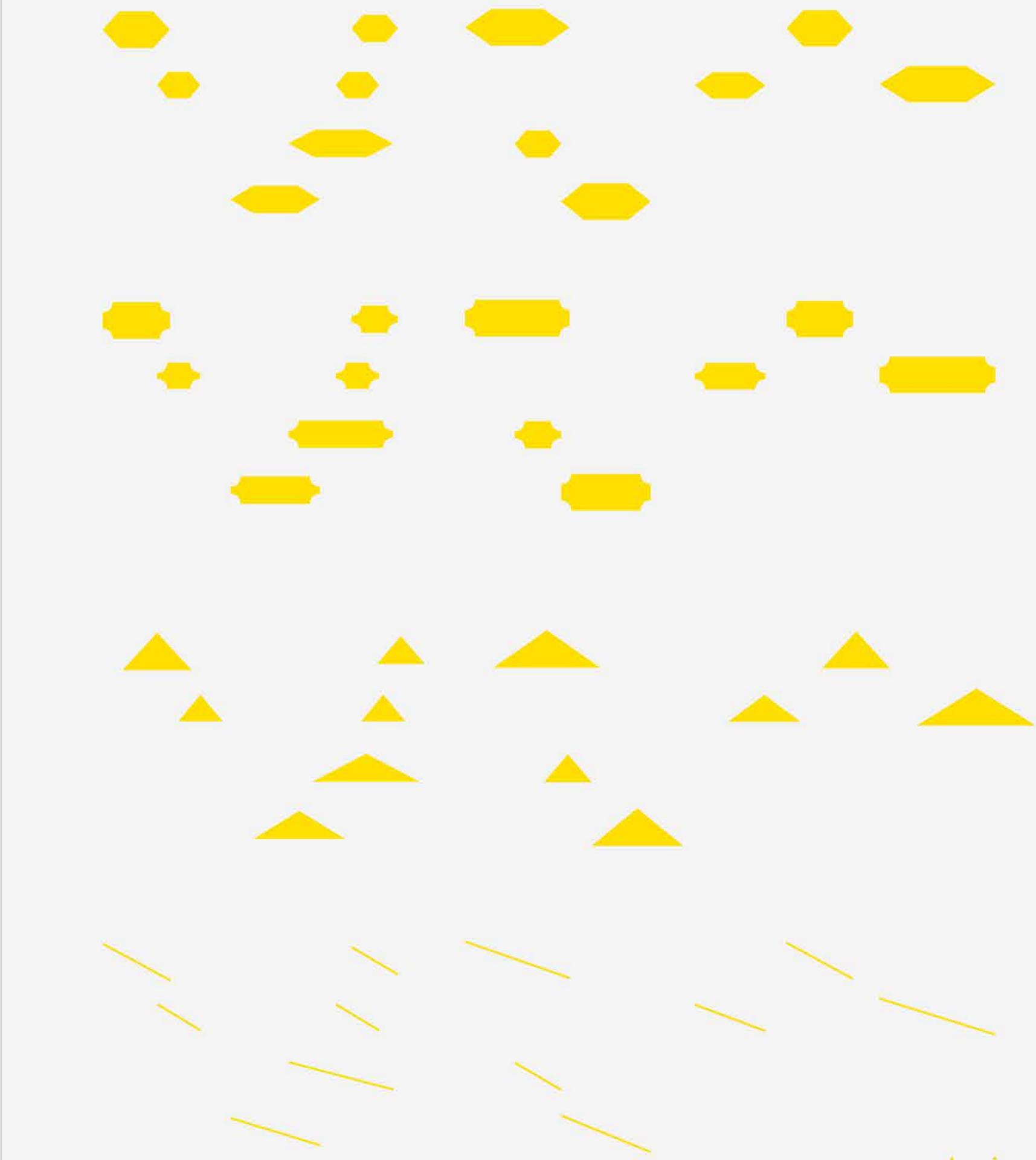
100 Films, 100 Posters

아주 [] 서 나는 너에게 [] 아주 [] 을 다하여 너는 지금 [] 있다.¹
From afar I hear you over vast reaches of time you come hereby

물론 나는 [] 있다. 오직 []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 보다 오래 [].²
Of course I know; It's simply luck that I've survived so many fri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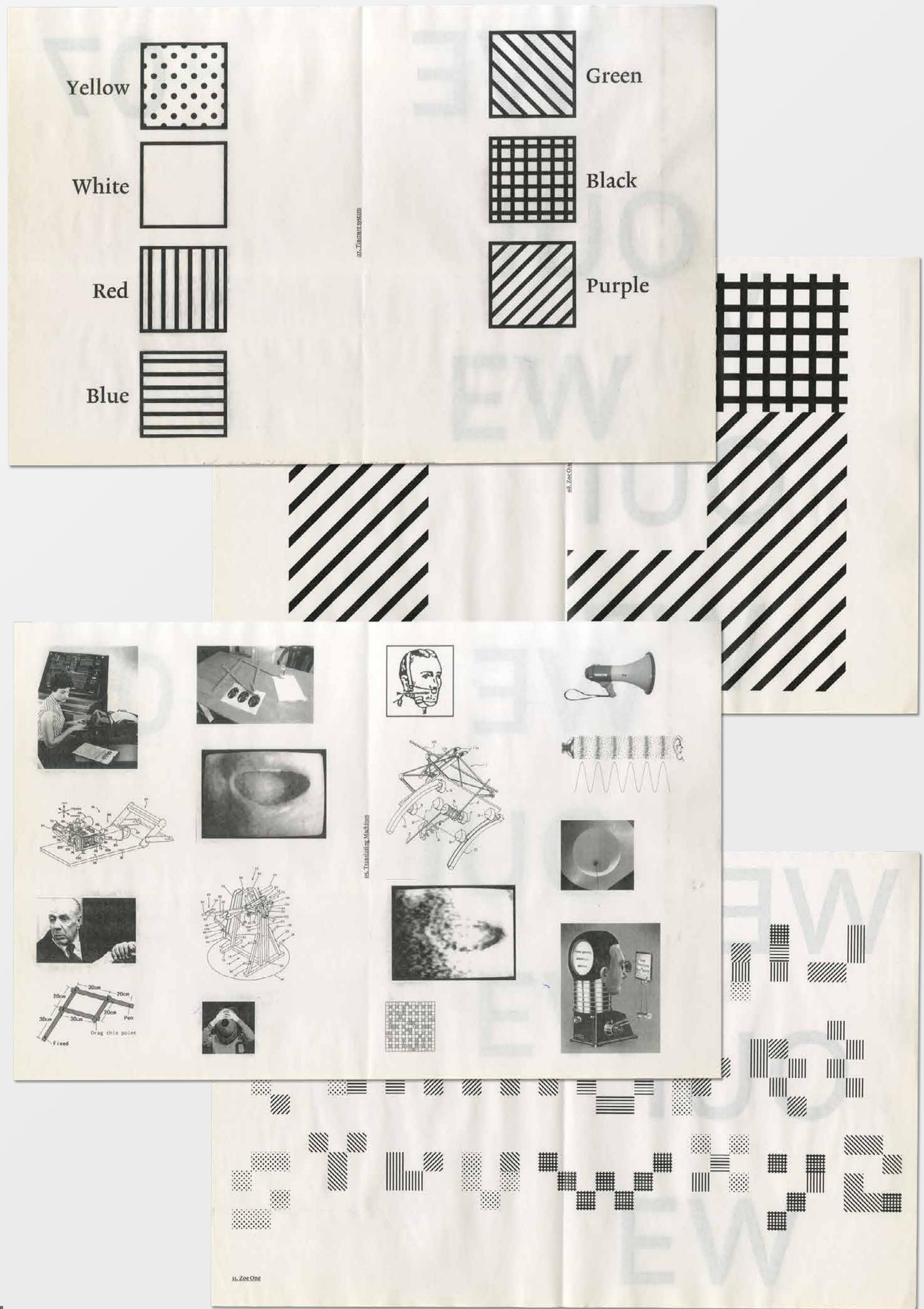
얼마나 많은 매미들이 [] 채 여름을 [] 할 것인가.³
How many cicadas will give up summer worn out crying?

봄이 가도 그대를 [] 없고 별이 져도 그대를 [] 없다
Though spring has passed I have not forgotten you Though stars have set I have not forgotten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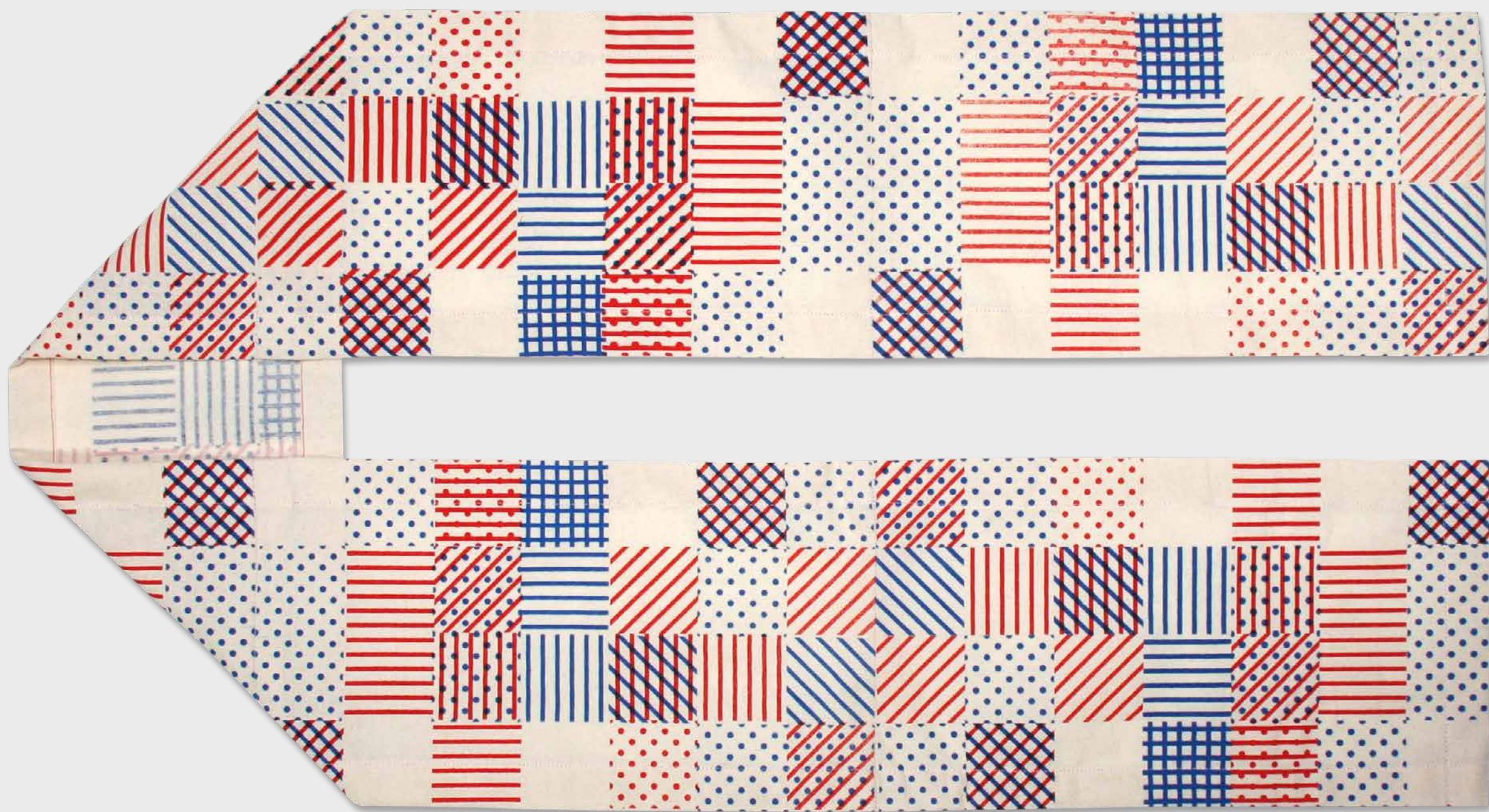


장준엽¹ 진청하² 전신환³

Jeonju
Intl. Film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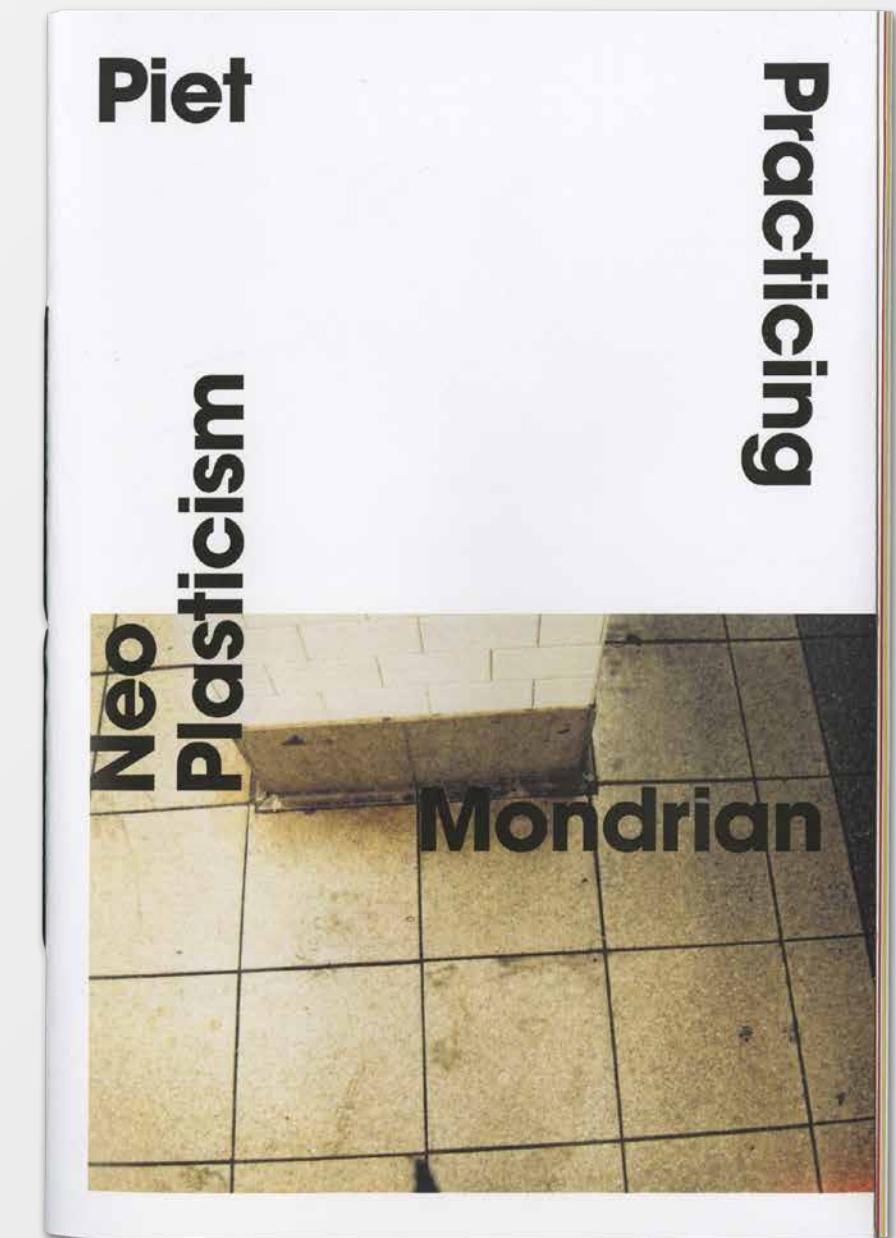


Zoe



시각적 공감각 Synesthesia에 관한 프로젝트 결과물들을 모아둔 인쇄물들과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든 실험적인 알파벳을 이용하여 만든 스카프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네덜란드 구성주의 회화의 거장
피트 몬드리안의 묘지를 찾아가는
여정을 사진으로 기록한 책



Practicing Neo-plasticism





Fin.